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1. 기획 의도

자장면은 중화요리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가면 자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자장면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차이나타운에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중국음식 자장면이 막상 중국에는 없다는 사실, 무척이나 아이러니하게 다가왔다.
자장면은 중국 음식이라 하기도 한식이라 하기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우리는 어디엔가 소속되어 싶어 하고,
때론 자신도 모르게 소속되기도 한다.
이처럼 소속은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소속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아무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을 때의 막연한 두려움,
살면서 누구나 겪어봤을 일이다.
홀로 태어났으나 결코 홀로 살수 없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하는 그 이율배반적인 현실에서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자장면 같은 인생사의 아이러니를 그려보고 싶었다.

코미디란 장르적 특성을 넘어, 결코 가볍지 않으면서 가치 있는 이야기로 구석진 현실을 재조명 해보고 싶다.

2. 작가 노트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없어질 수 있어도 서울의 이태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결코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 혹은 민족 간의 차별과 갈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세상은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세상이 세분화되는 만큼 소속도 다양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인생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단 이야기이기도 하다.

3. 등장인물

주요 인물

마골피 (27세)

한국에도 중국에도,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자장면 같은 인생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고아가 된 후 화교촌에서 자란 화교 아닌 화교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중국집에서 일한 탓에 자연스레 중국집 주방장이 됐다. 현재 양부
모 마사장과 마부인이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 홀로 중국집을 운영한다.
마사장 내외의 약을 짓던 약국의 약사 김성지와 자연스레 친해지게 됐고, 남몰래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못 배운 탓에 자장면이 그 마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식하다. 그러나 그만큼 순수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성지 (30세)

우측 젖꼭지가 없는 화교촌의 '나이팅 게일'

거지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 성폭행으로 한쪽 유두를 잃었다. 그때 어린 성지를 치
료해준 산부인과 수술 집도의가 현재 그녀의 양어머니 명진이다. 이후 명진의 양녀
로 성장한 성지는 상대적으로 인권보호가 취약한 차이나타운에서 약사를 하고 있
다. 성폭행도 있었지만 현재 그녀의 엄마인 명진이 지독한 페미니스트인 탓에 그녀
는 아직까지 남자와 사귀어보지 못했다. 남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그녀의 엄마
탓에 허물어진 지 오래됐다.
그녀의 외모는 수려하다. 얼굴도 몸매도 뛰어나다. 그러나 그녀가 가끔씩 던지는 말
에서 무식함이 느껴질 때도 있다.

윤병준(35세)

우성 인자 집안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열성 인자

대기업 건설 그룹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열성 인자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똑똑하고 수려한 용모를 자랑하는 반면 그는 모든 부분이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다.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랑에 굶주렸다. 아버지 윤회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일마다 어쩔 그렇게 대형사고로 연결되는지... 그에게 가출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젠 그가 사라져도 가족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다. 성장하면서 겪어온 애정 결핍은 그를 고급 룸살롱으로 인도하게 했고 그곳에서 아가씨로 일하는 은주를 만나 밀애를 즐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아직 미혼이다. 대기업 규수들은 기왕이면 병준의 동생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번 선을 불 때마다 퇴짜 맞기 일쑤이다. 게다가 윤회장의 눈에 웬만한 여자들은 차지도 않는다. 그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대목이다.

골피의 주변 인물

마사장 (63세)

IMF시기 고아를 입양한 골피의 대부

20여 년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건너와 차이나타운에서 중화요리점을 열었다. 한국에 IMF가 불어 닥친 시절 그의 중국집에 홀연 듯 어느 고아가 찾아왔으니 그가 바로 마골피다. 마침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임신을 포기를 하려던 중 마사장은 그 아이를 수양아들로 받아드리고 마골피란 이름을 지어준다. 현재 부인과 함께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 기초적인 생활이 어렵다.

마부인 (60세)

마사장의 부인으로 골피의 의붓어머니다.

현재 디스크를 심각하게 앓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홍관장 (68세)

동인천 차이나타운에 무술 도장을 차린 화교촌의 촌장

현재 동인천 차이나타운의 10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의 촌장파도 같은 인물이다. 소문에 의하면 소싯적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워 연마하였으나, 이소룡과의 대결 후 한국으로 건너와 무술 도장을 차렸다고 한다. 처음엔 도장이 이소룡의 부흥에 맞물려 10개의 건물에서 도장을 운영하였으나 이소룡의 죽음 후 서서히 도장이 몰락하여 지금은 한 개의 도장만 운영하고 나머지 건물은 세를 주고 산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차이나타운과 함께 했기에 자연스레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성지의 주변인물

명진 (58세)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 낙태 전문 의사 성장한 페미니스트

산부인과라는 생명의 탄생을 다루는 분야에서 낙태 전문의가 된 그녀가 페미니스트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성폭행으로 인해 유두를 상실한 아이(훗날의 성지)의 수술을 무료로 집도해준다. 아이의 엄마는 죽었지만 그녀가 노숙자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한 형사들을 보고 이렇게 인권을 뒤흔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 없다며 자신의 딸로 받아드린다. 훗날 그녀는 산부인과와 병원장이 되고 자신의 딸 성지가 약사가 되어 차이나타운에서 약국을 차렸을 때도 불법적으로 약을 제공해준다. 그녀는 성지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꺼려한다.

성지의 친 母 (30대 초 사망)

생계형 성매매 열창 거지

지능이 떨어지는 전형적 여성 노숙자로서 다른 여성 노숙자와 다른 점이라면 지나치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가 바로 성지다. 성지와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남자 노숙자, 혹은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통해 푼돈을 벌며 살아간다.

그러나 성지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구하다가 개죽음을 당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병준의 주변인물

윤회장 (68세)

병준의 아버지이자 건설회사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다.

첫째 병준이 워낙 기대에 못 미치게 성장한 탓에 둘째 재황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혜숙 (65세)

병준의 어머니이자 윤회장의 아내. 그러나 그녀는 자식에 대한 애정, 혹은 남편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은주 (30세)

병준이 유일하게 만만하게 대하는 여자, 유일하게 편하게 자신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한 그녀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직업여성이다.

나йд도 많은데다가 워낙 선천적인 노안이라서 그나마 일하는 업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때문에 그녀에겐 병준이 절실하다. 멍청한 병준만 잘 굴리면 팔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병준을 놓아 줄 수가 없다.

재황 (32세)

병준의 동생이자 윤회장의 둘째 아들.

형과는 반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장한 그는 잘 생긴데다 키도 크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도 싫어하고 잘난 척을 잘 한다.

4. 시놉시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표 윤회장의 장남 윤병준이 자장면을 먹다 독살 될 뻔 했던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진다.

화교 출신의 중국집 주방장이었던 마골피가 자장면에 마약류의 진통제를 다량 투입한 것, 하지만 탕수육 속에 있던 목이버섯의 해독 작용으로 인해 윤병준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강력한 용의자 마골피는 잡혔지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윤병준은 의식 불명에 빠져있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과연 마골피가 대기업의 장남 윤병준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우성 집안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열성 윤병준.

대기업 건설회사 회장의 장남인 그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골칫덩이 사고뭉치다.

서른이 훌쩍 넘은 그가 사고를 치고 가출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예삿일이다.

이 사건도 가출 후, 호스티스 은주의 집에서 기거하던 때 벌어졌다.

룸살롱에서 일하는 은주를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의 재개발 소식을 접한 병준.

이것이 아버지 윤회장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 그는 차이나타운을 매수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오리지날 한국산 토종 화교 마골피.

사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다. 하지만 고아가 된 이후 화교촌에서 자란 화교 아닌 화교로 성장한다.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집 주방장을 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동네 성인 오락실 사장 윤병준이 접근 한다.

처음 받는 호의에 그들은 쉽게 의형제를 맺고 골피는 화교촌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 준다. 그 와중 자신이 짝사랑 하는 약사 성지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 놓고... 화교촌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게임장에 몰려드는데...

우측 젓꼭지를 상실한 화교촌의 나이팅게일 김성지.

산부인과 병원장 명진의 딸로써, 차이나타운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 그녀. 빼어난 용모에 넘치는 지성인 성지.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콤플렉스는 오른쪽 젓꼭지가 없다는 것.

어릴 적 성폭행으로 인해 젓꼭지를 상실한 그녀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근처 게임장 주인 병준이 다가온다.

이 남자는 조그만 게임장으로 돈을 벌어 언젠가 놀이동산을 만들겠다고 말할 정도로 순수하다.

이렇게 순수한 남자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게 된 성지는 병준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데...

이들의 운명과 차이나타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짜장의 고향>

S#1. 프롤로그 - 텔레비전 화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뉴스의 한 장면이다.

골피가 검찰청 안으로 진행되는 현장.

마골피,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다.

수많은 기자들이 골피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고 질문을 쏟아낸다.

기자 오늘 오후 7시경 꿈의 건설 그룹 총수 윤성찬씨의 장남 윤병준씨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 마씨가 검찰로 인계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장면 속에 독극물을 넣는 등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미뤄 개인적인 원한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이 돌아가고.

병원 앞, 윤회장이 차에서 내린다. 그의 곁에는 수행비서 몇 명이 따라붙는다.

병원 앞에 있던 기자들이 윤회장에게 달려든다.

기자1 윤회장님 아드님의 상태가 어떤가요?

기자2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기자3 검찰에선 뭐라고 하나요?

기자들 윤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병원으로 향하는 윤회장, 기자들이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윤회장을 따르는 수행비서들이 기자들을 저지시키고, 그 틈에 윤회장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타이틀 <짜장의 고향> 이 뜬다.

S#2. 병실 (저녁)

혜숙 (E) 애, 텔레비전 꺼버려라.

텔레비전 화면이 꺼진다.

균일하게 정렬된 텍스트들이 병실 천장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병준의 현재 모습은 이러하다.

눈은 뜨고 있으나 초점이 없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코에는 호스로 된 산소 호흡기가 달려있다.

병실엔 산소 호흡기를 통해 내뿜는 병준의 숨소리와 그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알리는 심장박동기의 소리만 들린다.

병실은 특실답게 호텔만큼 잘 꾸며졌다.

병준이 누워있는 침대 옆 쇼파에 병준의 엄마 혜숙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혜숙의 옆자리에 앉은 재황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본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희장이 들어온다.

재황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윤희장 (혼잣말로) 동파리 같은 기자 새끼들.

재황 오셨어요?

윤희장 닥터 박 좀 오라고 해.

CUT TO - 시간 경과

혜숙은 쇼파에 계속 앉아 있다.

윤희장과 재황은 병준의 침대 옆에 서서 닥터 박의 브리핑을 듣는다.

닥터 박 코데인! 원래 진통제로 쓰기는 한데, 이거 마약입니다, 마약. 환각 작용도 환각 작용이지만 독성이 워낙 강해서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죠. 아드님은 이 약물에 의해 쇼크 받은 상태입니다.

재황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희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애 상태가 어때요?

닥터 박 코데인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하루에 한 알 이상 먹으면 위험해요. 대개는 세 알 이상 먹으면 정신을 잃기 마련이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아드님에게선 다섯 알 이상의 성분이 검출됐어요.

윤희장 그래서 지금 우리 애 상태가 어떠

닥터 박 (윤희장의 말을 끊으며)그 약의 티 포틴 성분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는 이미 2000년 하와이에서 열린 국제 의학회에서도 검증이 됐죠. 난초에 그 약을 투입한 결과 두 시간 만에 시들어 버렸어요. 그 약을 세알도 아닌 다섯 알이나 먹었으니...지금 살아있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재황 (고개를 끄덕인다)

윤희장 그래서 우리 애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닥터 박 네이시스 노 케이스 쇼크,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를 말합니다. 지금 아드님의 상태가 바로 네이시스 노케이스 쇼크, 그러니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정신적 쇼크 상태입니다.

재황 (고개를 끄덕인다)

윤희장 네이시스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 애 상태가 어떤지나 말해 봐요.

닥터 박 예? (살짝 기분 상한 듯이)예, 뭐 쉽게 말해서 코마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윤희장 닥터 박, 지금 무슨 임상 실험 세미나 하는 줄 알아? 왜 계속 알아먹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지랄이야? 언제 깨어나는지 그거나 말해 봐.

닥터 박 (윤희장의 말에 당황한 듯) 아, 회장님. 아드님이 언제 깨어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의사래도 알 수가...

윤희장 모른다고? (닥터 박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모른다고? 이 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닥터 박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

재황이 윤희장을 만류하고 닥터 박은 윤희장을 피해 도망간다.

윤희장 의사라는 새끼가 모른단 말이 잘도 나온다. 잘도 나와.

닥터 박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환자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윤희장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그럼 나가서 맞을까? 기자들 앞에서 개망신 한번 당해 볼래? 이 새끼야, 모르면 '현재로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면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모른다는 게 의사라는 새끼가 할 소리야?

앉아서 지켜보던 혜숙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혜숙 그만 좀 해요. 닥터 박 얘기 못 들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 짚아요.

재황 아버지, 진정하세요.

혜숙 닥터 박도 나가 봐요.

닥터 박,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병실을 나간다.

윤회장은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리고 있다.

윤회장 저것도 주치의라고. (재황에게) 검찰에서는 뭐래?

재황 검찰에서요? (곰곰이 생각하다)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회장 (뒷목을 잡으며)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봐. 자식아.

S#3. 검찰청 복도에서 취조실

손검사, 취조실을 향해 걷는다.

깨끗한 양복과 말끔하게 넘긴 올백 머리가 인상적이다.

그의 걸음이 매우 빠른 것으로 보아 상당히 급해 보이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유가 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자 꺼내 받는다.

손검사 아이고, 윤회장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사이) 예,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요 자식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진
마십쇼. 제가 누굽니까?

손검사,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취조실 안에는 골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다.

골피는 손검사가 들어와도 인기척을 하지 않는다.

손검사 예? 사형이요? 그건 재판을 해봐야...

윤회장 (F) 길게 말할 것 없어. 무조건 사형시켜. 무조건. 알았어?

통화 종료음 들린다. 손검사,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본다.

손검사 미친 새끼, 사형이 무슨 시팔 주차딱지야? 아무튼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깐. 안 그러냐?

손검사, 골피를 향해 방긋 웃는다.

골피가 무표정으로 있자 손검사의 표정이 굳지만 다시 미소를 짓는다.

손검사 너무 걱정 하지 마. 사형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난 니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네 형한테 고민
털어놓듯이 편하게 얘기하면 돼.

손검사,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 한 후 노트북을 펼친다.

손검사 그럼 이름부터 말해 볼까?

골피, 고개를 돌려 손검사와의 시선을 피한다.

S#4. 성지의 취조실 (동 시간)

테이블 두고 마주앉은 성지와 박검사.

세련된 성지, 반면에 꼬질꼬질한 박검사, 그러나 그의 인상은 상당히 부드럽다.

박검사,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한다.

박검사 바쁘신데 자꾸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성지 죄송한 줄 알면 우리 그만 하죠, 경찰에서 와라가라 검찰에서 와라가라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박검사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이라도 시끌시끌하면 묻혀가기라도 할 텐데 하필 또 이렇게 잠잠할 때 이런 큰 사건이 터져와서... 모쪼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검사, 노트북을 펼친다.

박검사 성함이 김성지씨 맞으시죠.

성지 예. (짜증스럽게)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S#5. 골피의 취조실 (동 시간)

손검사, 머리가 이미 많이 헝클어졌다.

테이블 위, 노트북 옆에 재떨이에선 이미 많은 담배꽂초가 쌓여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취조실에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손검사, 서류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손검사 아무튼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신비주의라니까.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국 기록도,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어. 중국 대사관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너 정체가 뭐야? 언제 밀입국한 거야? 밀입국 한 목적이 뭐야? 이러려고 온 거야? 사람 죽이려고? 너 산업 스파이야? 윤병준이 왜 죽이려고 그랬어? 너 뭐하는 놈이야?

골피, 여전히 손검사의 시선을 피한다.

S#6. 몽타주 (골피의 과거)

한자로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큰 글자를 새긴 패루가 있다. 10살 남짓한 골피가 그 패루 아래서 차이나타운을 알리는 패루를 올려다보고 있다.

중국집 안에서 입에 자장을 잔뜩 묻힌 채 자장면을 먹는 어린 골피.

어린 골피에게 서툰 한국말로 이름이 뭐냐고 묻는 마사장 내외. 어린 골피는 그 말투를 따라한다. 중국어로 '어쩌면 좋냐'고 묻는 마사장 부인. 어린 골피는 마부인의 중국어를 따라한다.

마부인 너 이름이 뭐니?

골피 너 이름이 뭐니?

마사장 너 엄마 어딴어?

골피 너 엄마 어딴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사장과 마부인,
그 때 골피가 주머니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내 마사장에게 내민다.
그 전단지에는 고아원에서 고아를 잃어버린 내용이 담겨 있다.
나이 10세, 이름 박찬규등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고 사진은 골피의 얼굴이 있다.
전단지를 읽어본 마사장과 마부인.

마부인 (중국어로)어떡하죠?

골피 (중국어로 말하는 마부인을 따라한다)어떡하죠?

마사장 (큰 소리로)천방지축 마골피!

S#7. 검찰청 취조실 (현재)

손검사, 골피의 멍살을 잡는다.

손검사 대답해. 너 누구야? 니 정체가 도대체 뭐야?

마골피 (큰 소리로) 천방지축 마골피.

손검사, 골피에게 주먹을 날린다.
골피, 손검사의 주먹에 맞고 자리에서 쓰러진다.

S#8. . 병준의 병실 (밤)

고정된 화면은 병준의 시선이다.
병원 천장만을 비추고 있다.

병준 (E)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까?

병실 쇼파에 윤회장과 재황이 앉아있다.

재황 형이랑 동거했다던 그 술 집 에 있잖아요, 회사로 또 찾아왔던데요? 아버지만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뭐라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윤회장 뻔한 거 아니야? 지금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또 찾아오면 적당히 쥐어줘서 돌려보내.

재황 몇 번을 그랬는데도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만나 보시는 게...

윤회장 한두 푼 뜯어낼 생각이 아니구만. 다음엔 니가 직접 만나서 한 몫 챙겨주고 단단히 입단속 시켜. 이럴 때 괜히 언론에 물 흐리면 다 끝장나는 거야. (한숨을 내뿜다) 으휴. 저 쓸모없는 새끼 진짜.

윤회장 자리에서 일어나 병준의 곁으로 다가간다.

병준의 고정된 시야 안으로 윤회장의 얼굴이 보인다.

병준 (E) 아버지.

윤회장, 병준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윤회장 아무튼 이 자식은 끝까지 말썽이야. 미친 새끼.

재황 진정하세요.

병준 (E) 죄송해요.

S#9. 병준의 집 거실 (초저녁) (사건 발생 3달 전)

자막 -사건 발생 3달 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대 저택의 실내.

현관문이 열리고 윤회장이 들어온다.

현관문 앞까지 가정부 아줌마가 마중을 나온다.

아줌마 회장님, 오셨어요?

윤회장 병준이 안에 있죠?

아줌마 그러니까...있기는 있는데요. 몸이 아프다고...

윤회장 몇 시에 들어왔어요?

아줌마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윤희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골프 클럽 안에서 골프채 하나를 꺼낸다.

윤희장 아줌마, 현관 문 좀 잠가요.

현관문이 찰각하고 잠긴다.

S#10. 병준의 방 (동 시간)

한편 늘어난 런닝에 추리한 반바치 차림의 병준,
헤드셋을 끼고 인터넷 고스톱을 치고 있다.
윤희장이 방으로 들어온 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고스톱을 치는 병준.
윤희장, 병준의 어깨위에 살포시 손을 얹는다.
병준이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는데 윤희장이 있자 화들짝 놀란다.
윤희장, 병준을 보고 방긋 웃는다.

병준 아버지. 일찍 퇴근하셨네요.

윤희장 너도 일찍 퇴근했구나.

병준 네? 그게...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윤희장 김상무한테 들었다.

병준 김상무한테요?

윤희장 뭐냐? 고스톱이냐?

병준 아니요. 맞곤데요.

윤희장 맞고? 그러니까 내가 때리고 너는 맞고 할 때 그 맞고를 말하는 거냐?

병준 (기죽은 듯) 아니요, 둘이 치는 고스톱 할 때 맞곤데요.

윤희장 농담이야. 농담.(화면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재밌겠다. 어렵냐?

병준 (조심스럽게) 알려...드릴까요?

윤희장 어. 그래. 어디 한 번 알려줘 봐. 이거 재밌겠는데?

병준 (밝게)아주 간단해요. 고스톱이랑 똑같은데요. 컴퓨터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오히려 점수 계산까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게 더 쉽죠.

윤희장,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윤희장 그래? 오늘만 천 오백만원? 많이 땀네? 우리 병준이가 그래도

현관문 밖으로 병준이 뛰쳐나온다. 그 뒤를 윤회장이 골프채를 들고 따라온다.
병준, 맨발에 반바지, 런닝 셔츠차림으로 도주 중이다.
병준, 한참을 앞서나간다.

윤회장 너 이 자식, 거기 안서?

병준, 윤회장을 따돌리고 한참을 앞서서 도망간다.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며 뛰는 병준, 커브를 도는 찰라,
골목을 꺾어 들어오는 고급 승용차와 부딪친다.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는 병준, 시야가 흐려진다.
차 문이 열리고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내린다.
또각 또각 소리를 내며 구두를 신은 남자의 남자가 병준에게 다가온다.
고통스러워하는 병준, 흐려진 초점이 또렷해지면서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
병준의 시야에 재황이 들어온다.

재황 형! 형!
병준 재황아. 일찍 퇴근했구나.
재황 형! 꼴이 이게 뭐야?

때마침 골목을 꺾은 윤회장이 뛰어온다. 윤회장, 병준과 재황을 본다.

윤회장 재황아. 니 형 잡아라.

병준, 절뚝거리며 일어나서 재황의 차에 탄다.

병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뭐해? 빨리 타.
윤회장 재황아, 니 형 잡아.
병준 뭐해? 얼른 타.

재황, 얼떨결에 조수석에 탄다. 병준, 시동을 걸지만 잘 걸리지 않는다.
이내 윤회장이 골프채를 들고 달려온다. 윤회장, 병준을 거의 다 잡았다.
골프채가 차 본넷 위에 다다르는 순간 마침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린다.
병준, 힘차게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한다.
병준을 다 잡은 윤회장과 자동차의 거리 점점 멀어진다.

병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아버지 죄송해요.

S#12. . 재황의 차 안 (저녁)

주차된 차 안. 운전석에 앉아있는 병준과 조수석에 앉아있는 재황.
재황의 표정은 무덤덤한 반면 병준은 죄지은 듯 자신 없이 바닥만 본다.
병준, 맨발만 부비적거린다.

재황 정말 어찌려고 그래?
병준 당분간 어디 숨어있어야지 뭐.
재황 갈 데는 있어?
병준 너무 걱정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이) 너 돈 좀 있냐?
재황 돈? 얼마나?
병준 그냥 있는 거 다 쥐봐.

재황, 병준에게 지갑에서 현금 십만 원 정도를 빼 건네준다.

병준 이거 밖에 없어?
재황 정말 이게 다야.
병준 카드는 없냐?

재황, 못마땅한 표정으로 카드도 건네준다.

병준 신발도 줘.
재황 (버럭)그럼 난 뭐 신고 가?
병준 넌 차타고 들어가면 되잖아.

병준의 발, 새까맣다. 병준 양쪽 맨발을 부비적거린다.
재황, 짜증스럽게 신발을 벗어 병준의 발밑으로 던진다.

병준 그래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이 정도면 싸게 한 거 아니냐?

병준이 멧쩍게 웃는다.
병준의 웃음에 재황의 짜증스러운 표정이 더 일그러진다.
병준, 재황의 반응이 없자 민망해서 다시 수그러든다.

병준 농담이야.
재황 몸은 괜찮아? 아까 세게 받았는데.
병준 끄떡없어. 근육이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정도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골프채로도 맞는데 뭐.
재황 (콧방귀를 뀌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병준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갈게. 아버지한테는 나 해외로 잠깐 나간 것 같다고 얘기 좀 해줘.

재황 한 달? (콧방귀를 뀌며) 사채 끌어 쓴 것도 아서.

병준 아버지 그것도 아서? (한숨) 김상무 개새끼. (사이) 아무래도 석 달은 있어야겠지?

재황, 기가 찬 듯 웃는다.

병준 나 없는 동안 엄마, 아버지 잘 부탁한다.

재황 형이나 걱정해.

병준, 차에서 내린다.

S#13. 은주의 집 (밤)

원룸으로 된 은주의 집.

은주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짙은 화장을 하고 있다.

병준은 화장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발을 닦는다.

은주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래?

병준 몰라, 씨발.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

은주 오빠! 이래서 우리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야?

병준 정신 차려, 너 나랑은 평생 결혼 못해.

은주 오빠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빠 동생은 큰 계약 땡땡 터뜨리면 서 다니는데 오빠...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도 다르냐?

병준 난 뭐 하기 싫어서 안하나? 경호 실장이 무슨 계약을 하겠냐? 경호 실장이 뭐야, 경호실장이. 내가 이 나이에...내 친구들은 다 이사다 상무다 뭐다 하는데.

은주 그러니까 사고 좀 그만 좀 쳐.

병준 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세상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딴어?

은주 오빠 실수는 어떻게 매번 신문에 실리냐?

병준 그게 막말로 내 잘못이냐? 내가 기사 쓰냐? 내가 기사 써?

은주 몰라 아무튼. 이래선 우리 결혼 하긴 다 틀렸어.

병준 그놈의 결혼 타령은 그만 좀 해. 내가 여기 있는 거 우리 아버지 아시는 날엔... (한숨을 쉬고) 너 옛날 같았으면 삼청 교육대 끌려 갔어.

은주 오빠, 그럼 난 오빠한테 뭐야? 나랑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나는

왜 만나?

병준

왜 만나긴 왜 만나? 사랑하니까 만나지.

은주

사랑하긴 개뿔, 맨날 나한테만 지랄하면서. 지 아쉬울 때만 찾고.

병준, 화장하고 있는 은주를 뒤에서 껴안는다.

은주도 내심 싫지 않은 기색이다.

병준

양탈은, 이년아. 이리와 봐. 내가 한 번 품어줄게.

노골적으로 은주를 더듬는 병준,

이런 병준이 화장하는데 방해가 되자 뿌리치고

은주

(뿌리치며) 왜 이래? 이거 봐.

은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준은 은주의 몸을 계속해서 더듬는다.

은주는 내심 싫지 않은 기색이다.

은주

내가 좋은 정보 줄 테니까 회장님한테 점수 좀 따 볼래?

병준, 은주의 말에 관심 없다는 듯 침대에 눕는다.

병준

정보? 정보는 무슨 씨발 정보. 니가 그 때 강원도에 땅 사라고 해서 샀다가 얼마나 개피 본 줄 알아?

은주

일단 들어 보거나 하라니까.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야.

은주, 화장하던 것을 멈추고 병준을 향해 돌아앉는다.

은주

어제 우리 룸에 건설교통분과 뭔가에서 공무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말이...

인서트

* 고급 룸살롱 내부

중년의 남자들이 호스티스를 끼고 술을 마시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은주

(E)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니까 인천도 관광지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병준

(E) 관광지 개발?

은주 (E) 그래. 관광지 개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광지를 만들려면
그만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데는 다 개발이 됐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찾다, 찾다 보니까 동인천은 아직 남아
있다 이거야. 땅 값도 싸고, 화교도 많으니까 인건비도 싸고 관광
지로 개발하기 안성맞춤! 그러니까 내말은!

- 현재 은주의 집으로

은주와 병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병준 그러니까 거기 땅을 먼저 매수하는 사람이 거기를 재개발 할
수 있다?

은주 그렇지, 오빠.

병준 야, 내가 그만한 땅 살 돈이 어딴냐?

은주, 급 실망하여 돌아서 화장대를 보고 화장을 고친다.

은주 고스톱 칠 돈은 있고 투자할 돈은 없냐? 으이구, 건설 회사 회장
아들이면 뭐하냐고. 하는 일이 경호실장인데...오빠 동생 같았으면
벌써 땅 주인 만나서...

병준 야, 내 앞에서 그 새끼 얘기 하지 말랬지? 그리고 난 뭐 고스톱
치고 싶어서 치는 줄 알아? 그것도 내 나름대로 재테크야.

은주 기왕 재테크를 할 거면 쓸데없는 고스톱 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르마블 같은 땅 투기를 해서 부동산을 모으라고. 그런 게 재테
크라는 거지, 한창 상한가 치는 주식 팔아서 고스톱 판 돈으로
쏟아 붓는 게, 그게 재테크냐?

병준 너 이 쌍년, 지금 뭐라고 했어?

은주 뭐? 내가 틀린 말했냐?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

병준 (곰곰이 생각하며) 부르마블을 해서 부동산을 모으라고?

인서트 - 병준의 상상

알록달록 예쁜 놀이동산, 여기저기 놀이기구들이 돌아가고 있다.

바이킹 맨 끝에 마주보고 앉은 윤회장과 병준.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드는 병준과 윤회장.

윤회장 병준아!

병준 아버지!

은주의 집 -현재 시점

병준, 손으로 무릎을 강하게 내리친다.

병준 그래! 브루마블을 하는 거야!

S#14. 마골피의 중국집 (그로부터 3주 뒤)

아담한 화교촌의 중국집이다. 홀에 손님은 병준 밖에 없다.
골피는 병준의 주문을 받고 있다.

병준 여기 뭐가 맛있어요?

골피 다 맛있죠. 오늘은 해산물이 좋아서요, 유산슬도 좋고 양장피도 맛있어요.

병준 그래요? 그럼 탕수육도 맛있어요?

골피 그럼요. 저희 집은 특유의 소스가 일품이죠.

병준 그래요? 그럼 (고민을 하다가)에잇, 그냥 짜장면 하나 주세요.

골피 그냥 짜장이요?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고요?

병준 다른 거요? 단무지나 좀 넉넉하게 주세요.

골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고 발걸음을 돌린다.
그 때, 출입문이 열리고 성지가 들어온다.

성지 골피! 나왔어.

골피 (활짝 웃으며) 성지씨 오셨어요?

성지 짜장면 되지?

골피 물론이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골피, 싱글벙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간다.

CUT TO

골피는 음식을 들고 등장한다. 병준의 테이블 위에 자장면 그릇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성지의 테이블 위에는 자장면 그릇과 군만두 그릇을 같이 올려놓는다.

골피 군만두는 서비스에요.

성지 안 그래도 되는데. 잘 먹을게.

성지, 젓가락으로 자장면을 비비고 병준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병준 저기요. 사장님.
골피 네. 손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병준 나는 군만두 안 줘요?
골피 군만두 서비스는 요리를 주문해야 나오는데요.
병준 저 여자도 자장면 하나 시켰잖아요.
골피 아, 저 분은 단골 손님이라...
병준 나도 단골 할 테니까 군만두 서비스 줘요.
골피 저, 손님. 그건 안 되는데요.
병준 그러지 말고 좀 주세요. 나 군만두 무지하게 좋아해요.
골피 손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성지, 군만두 그릇을 병준에게 준다.

성지 골피, 그러지 말고 이거 드려. 나 어차피 빨리 가 봐야 돼.
골피 그래도 성지씨 드시라고 만든 건데.
성지 난 괜찮다니까. (병준에게) 그냥 이거 드세요.
골피 그럼 잠시만 기다리실래요? 제가 금방 다시 해드릴게요.
성지 됐다니까. 금방 가야 돼. 가게 오래 못 비우는 거 알잖아.

CUT TO

성지, 다 먹고 지갑에서 오천 원짜리를 꺼낸다.

성지 골피, 돈 여기 두고 갈게.

골피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나온다.

골피 됐어요. 그냥 가세요. 매번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한데.
성지 신세는 무슨 신세야. 여기 돈 두고 간다.

성지, 나간다. 성지 나가고 병준이 이 모습을 지켜본다.
병준,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병준 사장님, 계산이요.
골피 삼천 오백 원입니다.

병준 삼천 오백 원이요? 만 데보다 오백 원 비싸네.

병준, 카드를 내민다.

골피 손님, 짜장면은 카드 안 되는데요.

병준 요즘 카드 안 되는데도 있나? 아까 저 손님은 돈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나도 좀 봐주면 안 돼요?

골피 손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아까부터.

병준 농담이에요, 농담. 가만 보자. (지갑에서 상품권과 명함을 꺼낸
다)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상품권을 내밀며) 요 앞 사거
리에 게임장 새로 오픈 한 거 알죠? 이따 놀러 와요.

골피가 병준의 명함을 보는 사이, 병준이 가게를 나가버린다.

골피 저기요! 손님! 손님!

병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유유히 사라진다.

골피, 병준의 명함을 바라본다.

S#15. 골피의 집 (그날 밤)

낡은 양옥의 내부.

매우 좁고 어지럽다. 오랫동안 청소도 못하고 지낸 모양이다.

골피, 들어온다.

마사장 내외는 안방에 누워 있다가 골피가 들어오자 형식적으로 일어난다.

마사장 골피 왔니?

마부인 피곤하지?

골피 그냥 누워 계세요.

골피, 안방으로 들어가 다 먹은 밥상을 들고 나간다.

마사장 미안하다. 많이 힘드냐?

골피 괜찮아요. 어차피 장사도 안 되서 혼자 해도 한가해요.

S#16. 골피의 방 (동 시간)

아주 좁은 골피의 방, 내부는 이러하다.

딱히 수납 공간도 없어서 옷이며 책이며 쌓여있다.
얼핏 보면 지저분해보이지만 나름 정리가 되어있다.
방구석에 책상대신 쓰이는 밥상이 있고, 밥상아래 철판로 된 우루사 깡통이 있다.
골피가 그 깡통을 연다.
만 원짜리로 대략 2백만 원쯤 들어있다.
골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본다.
대여섯 장의 만원 속에 문화상품권 한 장이 끼어 있다.
골피, 지갑에서 꺼낸 만 원짜리 지폐를 우루사 통에 넣는다.
지갑에서 꺼낸 병준의 명함을 쳐다본다.

S#17. 병준이 운영을 하는 게임장 (밤)

병준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내부는 이러하다.
굉장히 넓은 실내, 수십 대의 게임기가 진열되어 있다.
덜러처럼 옷을 갖추어 입은 직원들 다섯 명이 게임장 안을 바쁘게 돌아다닌다.
골피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직원들이 예의바르게 외친다.

김양 고객님 오셨습니다.
직원 일동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골피에게 여직원 김양이 다가간다.

김양 (골피에게 다가간다) 혼자 오셨어요?
골피 네? 네. 혼자 왔는데요.
김양 처음이세요?
골피 저 그게 아니라요.
김양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겠어요?

골피, 얼떨결에 직원에게 끌려간다.

골피 저, 그게 아니라 (명함을 내민다)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여직원 사장님이요? 잠시만요. (무전기에 대고) 여기 손님이 사장님 찾아
 오셨는데요.

잠시 후, 탈의실 문이 열리고 병준이 나온다.

병준 아, 중국집 친구! 왔어?
골피 예. 저, (병준에게 받은 상품권을 내민다) 아까 외상값 삼천 오

백 원 주신다고...

병준 의상값? 남의 영업장에 와서 무슨 의상값이야? (골피의 상품권을 받고) 그냥 게임이나 하다 가.

골피 게임이요? 저는 의상값 받으러 온 건데요.

병준 됐어. 난 켜찮으니까 놀다가라고.

병준, 골피를 자리에 강제로 앉힌다.

골피 얼떨떨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병준, 게임기 안에 만 원짜리 지폐를 세장 집어넣는다.

게임기 화면에 릴 게임이 돌아간다.

병준 (뒤돌아 김양에게 큰 소리로) 김양아, 김군한테 이 친구 내 손님 이니까 신경 좀 써주라 그래.

S#18. 성지의 집 (그날 저녁)

집 안으로 성지가 들어온다.

집안 내부는 대 저택의 모습이다.

거실에 고급스러운 쇼파가 있다.

명진이 실크 재질의 잠옷을 입고 앉아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컵을 드는 명진의 손에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

50대 초반정도 보이는 그녀는 매우 날카롭게 생겼다.

성지 왔어요.

명진 늦었구나.

성지 뭐 하세요? 왜 혼자 술을 마셔? 안주도 없이.

성지, 쇼파에 앉아 청이가 마시던 컵에 양주를 따른다.

명진 요즘 자주 늦네?

성지 (술잔에 있는 술을 마신다)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명진 우리 딸 남자친구 생겼구나.

성지 아니야. 그런 거.

명진 엄마한테 또 숨기는 거야? 우리 딸 섭섭한데?

성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쉬세요. 나 올라갈게.

명진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엄마랑 한 잔 하자.

성지 피곤해요.

명진 피곤해? 그럼 오늘 엄마 방에서 같이 잘까?

성지 올라가 볼게요. 엄마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주무세요.

성지,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간다.

명진 성지야,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방문이 쿵 닫히는 소리 들린다.

S#19. 성지의 방

성지, 겹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블라우스를 벗는다.

브레지어를 찬 성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성지, 브레지어를 푸른다.

오른쪽 가슴에 젖꼭지(유두)가 없다.

젖꼭지가 없는 자리에 십자로 께맨 상처가 나 있다.

성지, 상처를 만져본다.

거울 속에 비친 성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S#20. 몽타주(성지의 과거)

거지 모녀가 맥도널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어린 성지의 손을 잡은 30대 정도 보이는 거지, 행색은 초라하나 얼굴은 굉장히 미인이다. 맥도널드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손님은 그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린다.

놀이터 그네 줄이 흔들린다. 성지가 그네를 타고 있다. 성지의 콧노래 소리가 들린다.

공중 화장실에서 ‘얼짱 거지’ 성지모와 늙은 남자가 정사를 벌이고 있다.

맥도널드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성지와 성지모, 그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다 피해 있다.

#공중 화장실, 몇 명의 노숙자들이 한 칸의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 있다. 기다리던 노숙자 한명이, 공중 화장실 밖으로 보이는 성지를 바라본다.

흔들리는 성지의 그네, 갑자기 멈춘다. 성지의 노랫소리도 멈춘다. 성지, 뒤를 돌아보자 늙은 노숙자가 성지의 그네를 잡고 웃고 있다.

노랫소리가 멈추고 성지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성지母도 성행위를 멈춘다.

놀이터와 떨어진 후미진 숲속, 늙은 노숙자가 허리띠를 푸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다. 성지가 반항을 하지만 노숙자는 성지를 강제로 겁탈한다. 노숙자, 성지를 애무하던 도중 가슴을 세게 깨문다. 성지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지만 그럴수록 노숙자는 성지를 더욱 강하게 겁탈한다. 갑작스레 성지의 얼굴에 피가 튄다. 노숙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감싼다. 성지母가 뒤에서 짱돌을 들고 서있다. 성지의 옷, 가슴 부위가 서서히 붉게 물든다.

도망가라고 손짓하는 성지 母, 그녀를 붙잡는 여러명의 노숙자들.

병원 복도, 옷이 피로 물든 성지가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때마침 진료실에서 나온 명진이 성지를 발견하고, 그 순간 자명종이 울린다.

S#21. 성지의 방 (현재)

자명종이 울리면서 정신을 차린 성지,
거울속의 성지의 모습이 비친다.
성지, 장롱 문을 닫아버린다.

S#22. 게임장 (동 시간)

계속 돌아가던 그림들, 붕어 그림 세 개가 맞는다.
게임기에서 상품권 10장이 차례차례 나온다.
골피, 상품권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골피, 지나가는 김양을 붙잡는다.

골피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김양	와, 많이 따셨네요.

CUT TO

김양, 현금을 골피에게 건넨다.

김양	수수료 10프로 빼고요 사만 오천 원이요.
----	-------------------------

S#23. 은주의 집 (동 시간)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와 물기를 닦는 병준.

출근 전, 화장을 질게 하는 은주.

은주는 거울을 바라보며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다.

은주 장사는 잘 되는 거야?

병준 몰라. 사람은 바글바글 한데 누가 누군지 알아야 말이지. 오는 놈 전부 쟁개처럼 생겼어. 이거 중국말을 배우던가 해야지.

은주 그러다 괜히 엉뚱한 새끼 벼락부자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병준 너 불벼락 한 번 맞아볼래? 채수 없게 말을 해도 꼭.

은주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라고, 그 동네 유지를 좀 찾아보던가.

병준 동네 유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거기 살았냐?

은주 뭐 그런 뻔한 걸 가지고 고민해. 거기 짜장면 처음 만든 동네라며. 그럼 짜장면 처음 만든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돈 무지하게 벌었을 거 아니야.

병준 오호라, (잠시 생각하다) 그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짜장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을 무슨 수로 찾냐.

은주, 화장 분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주 꼬옥~어려서부터 공부 못 한 티를 내요. 모르면 물어볼 생각을 해 봐. 몇 주 동안 거기서 장사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S#24. 골피의 중국집 (낮)

홀에는 병준이 홀로 앉아 있다.

골피가 주방에서 나온다.

골피, 테이블 위에 군만두와 자장면을 올려놓고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골피 군만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서비스예요.

병준 고마워. (자장면을 비비며) 어제 돈 좀 땀다면서?

골피 네? 조금요. 뭐 많이는 아니고요.

병준 (군만두를 집으며) 맛있겠는데? 잘 먹을게. (한 입 베어 물으며) 사실 난 군만두보단 탕수육을 더 좋아 하는데 말이야.

골피 군만두나 마저 드세요. (군만두 하나를 집어 먹는다)

병준 말이 그렇다고. (자장면을 비비며) 그런데 말야, 내가 뭇 좀 물어봐도 될까?

골피 예, 물어보세요.

병준 여기 원조 짜장면 집은 어디야? 이 근처 어디라고 하던데.

골피 원조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집이죠. 요 주변에선 제일 맛있어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면 뽑은 지 15년이 넘거든요.

병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런 형식적인 원조가 아니고, 진짜 짜장면을 처음으로 만든 집 말이야.

골피 짜장면을 처음 만든 집이요? 에이, 사장님도, 참! 그걸 여기서 찾으시면 어떡해요? 북경이나 상하이 어디쯤에 있겠죠.

병준 (답답한 듯) 아니, 짜장면을 최초로 만든 집, 그러니까 원조 짜장면 집은 여기 어디 있다던데. 자긴 그것도 몰라?

골피 사장님, 자장면을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한식이게요? 애국심이 너무 지나치시다. 중국집에 오셔서 짜장면을 한식이라고 우기는 건 예의가 아니죠. 사장님도 은근히 무식하시네.

병준,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병준 (호탕하게 웃으며) 내가 살다살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이젠 중국집 주방장한테까지 무식하단 소리를 듣는구만, 야 이 사람아, 중국엔 짜장면이 없어요.

골피 중국엔 짜장면이 없다고요?

병준 그래. 짜장면은 이 동네에 살던 중국 화교들이 한국사람 입맛에 맞게 만든 한국 최초의 퓨전 요리라고. 어떻게 이 동네 살면서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냐?

골피 그래요? 중국에 짜장면이 없다고요? 그거 정말 웃기는 짜장이네요.

병준 (별 관심 없는 듯 다시 자장면 먹는데 열중한다) 중국에서 온 화교가 어떻게 그걸 몰라?

골피 에이, 사장님. 저 중국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오리지널 토종 화교거든요.

병준 화교가 중국에 가 본적이 없다고? 야, 니가 진짜 웃기는 짜장이다.

병준, 다시 젓가락을 들고 자장면을 먹는다.

골피 그런데 사장님 정말 서울대 나오셨어요?

병준 왜?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봐?

골피 네, 저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봐요.

병준 사람 참, 촌스럽긴.

골피 사장님, 그러고 보니까 범생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병준 (입 주변에 자장양념이 묻어있다) 그런 말 자주 듣는 편이지.

골피 사장님 무지하게 똑똑하시겠네요.

병준 (흐뭇하게 웃으며) 그럼 원조 짜장면 집 말고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아?

골피 제가 그건 알죠. 그런데 그건 왜요?

병준 명칭하긴. 원조 짜장면 집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골피 서울대 나왔다고 다 아는 건 아닌가보네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는 흥관장님이네요.

병준 흥관장이 누군데?

골피 네, 오다가 못 보셨어요? 무술 도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관장님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S#25. 몽타주

자료화면이 몽타주로 나간다.

*소림사 간판이 붙어 있는 절간의 풍경이 보인다.

소림사 안, 넓고 황량한 공터에 바람이 불고 먼지와 함께 낙엽이 날라 다닌다.

무술 도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흥관장과 이소룡은 확실히 아니지만,

얼핏 보면 이소룡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무술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다부진 몸매를 자랑하는 이소룡 흡사男에 비해, 흥관장은 홍금보를 연상시킬 만큼 뚱뚱하다.

골피 (E) 흥관장님은 원래 소림사에서 무공을 연마하시던 무술인이셨어요.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이랑 소림사 동기세요.

병준 (E) 이소룡? 영화배우 이소룡?

골피 (E)네, 이소룡이요. 두 분은 절친한 친구이기 이전에 소림사 최고 자리를 다투는 라이벌이었대요. 한마디로 용호상박이었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용쟁호투란 애기도 있고요.

병준 (E) 무슨 소리야. 용쟁호투는 소림사 배경이 아닌데?

골피 (E)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최고를 가리기 위해 대결을 펼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진 사람은 소림사를 떠나기로 했던 거죠.

* 대결이 시작되고 막상 막하의 실력을 보이는 이들, 흥관장 필살의 발차기를 날리지만 이소룡은 피해낸다. 늦었다 싶은 흥관장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소룡 흡사 男, 이소룡 특유의 아보 소리와 함께 주먹을 내지르고 그 주먹이 흥관장의 배를 가격한다. 흥관장, 이소룡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는다.

이소룡 흡사 男, 이소룡 특유의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문대는 행위를 하며 포효한다.

*홍관장 붓따리를 들고 소림사를 등지고 떠난다.

골피 (E)그렇게 소림사를 떠나, 한국 바로 여기 동인천 차이나타운에
무술 도장을 차리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잘 돼서 도장만 10개가
넘었는데.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설립된 여러 개의 무술도장에서 홍관장이 어린 아이들을 수
련시키는 모습이 나간다. 홍관장의 기합 소리에 아이들의 무술 동작이 이어진다.

골피 (E) 그런데 이소룡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신문을 통해 이소룡의 비보를 접한 홍관장, 신문 반으로 접는다.
몇 개의 무술도장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중국집 간판이 들어선다.

골피 (E) 이소룡이 죽고 타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황비
홍이 있었으니까요.

*황비홍 주제가가 흐른다. 도장내의 어린 아이들이 황비홍을 연호한다.
뚱뚱한 홍관장의 얼굴에 땀 한 방울이 흐른다.
홍관장, 뒤돌려 날라 차기를 어렵사리 성공한다.
홍관장이 성공하자 아이들이 환호한다.
홍관장, 우렁차게 기합소리를 외치자 아이들의 무술동작이 이어진다.
홍관장의 모습에도 아직까진 기백이 넘친다.

골피 (E)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병준 (E) 갑자기 또 왜?

* 성룡의 취권 주제가가 나온다.

골피 (E) 성룡이 취권을 할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도장 안에는 아이들 보다는 아저씨들이 더 많다.
아저씨들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홍관장도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홍관장 취권의 모습을 어렵פות이 흥내 내고, 아저씨도 흥내 낸다.

*도장 간판이 내려간다. 그 자리에 중국집 간판이 올라간다.
도장 안에서 무술을 하던 홍관장이 쓰러진다. 아저씨도 쓰러진다.
만취된 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도장을 나간다.

무술 도장 몇 개의 간판이 내려간다. 그 자리에 중국집 간판이 올라온다.

골피 (E) 취권의 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도래했어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병준 (E) 설마...

골피 (E) 그래요. 주성치예요. 주성치가 소림 축구를 한 거예요.

*전단지 속의 홍관장의 모습, 주성치처럼 한 손에 축구공을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다.

*볼 트래핑을 하는 홍관장, 몇 개 하지 못하고 볼을 떨어뜨린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아저씨들도 아이들도 도장을 빠져나간다.

무술 도장 간판이 내려간다. 그 자리에 중국집 간판이 올라온다.

S#26. 골피의 중국집

앞 켠에 이어서 그 중국집에 지금 병준이 앉아있다.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병준이 골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골피 그래서 홍관장님은 세상에서 주성치를 제일 싫어하세요. 지금은 그 많던 건물들 다 세우고 사시죠 뭐. 사실 이 건물도 옛날 무술 도장이었어요.

병준 그럼 이 건물도 홍관장님 거야?

골피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원조 짜장면 집 찾으실 필요 없다 이 거예요. 사실 짜장면은 제가 제일 맛있게 하거든요.

병준, 골피가 만든 자장면을 들여다본다.

수타 면발의 굵기가 다 제각각이다.

S#27. 홍관장의 무술도장 (저녁)

홍관장,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똥똥해서 손끝이 발에 닿지 않는다.

보다 못한 어린아이가 홍관장을 뒤에서 눌러주지만 그래도 발끝에 닿지 않는다.

문이 열리고 병준이 시루떡을 들고 들어온다.

병준 안녕하세요.

홍관장 (스트레칭을 하다 고개를 들고) 누구슈?

S#28. 성지의 약국 (밤)

성지, 약국 카운터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다.
골피가 들어온다.

골피 성지씨.
성지 왔어? 약 받으러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갖다 줄게.

성지, 제조실로 들어간다.

골피 요즘 퇴근이 늦으시네요.

골피, 성지가 보고 있던 잡지를 들여다본다.
명품 핸드백을 서로 비교해 놓은 기사가 실려 있다.
성지, 약 제조실에서 나와 골피의 앞에 약봉지를 내민다.

성지 점심 식사 후 한 알, 아프다고 그 이상 드시면 절대 안 돼.
골피 성지씨, 저 바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안 까먹는
 다고요.
성지 이 약은 좀 위험해서 그래.
골피 그런데 이거 위험한 약 맞아요? 엄마가 이 약 먹으면 그렇게
 웃음이 난다고 그러던데.
성지 그게 바로 위험한 증거야. 먹고 기분 좋다고 그 약 몇 개씩 먹고
 골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라고. 원래 이거 일반 약국에서 파는 건 불법인 거 알지? 절대
 다른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골피 걱정 불들어 매세요.

골피, 약을 살펴본다.
성지, 카운터에 있는 잡지를 덮고 어질러진 약국 안을 정리한다.

성지 마사장님, 사모님은 잘 계시지?
골피 여전하시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성지 골피가 잘 돌봐 드려. 지금 상황에선 내가 해 줄 수 있는 게
 (약병을 흔들며) 이런 거 밖에 없네.
골피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성지 나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디스크라는 게 수술 한다고 해서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은 좀 …….

골피 (실망한 듯)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성지가 시계를 본다.

성지 (침묵을 깨며) 골피는 요즘 퇴근이 이르네? 이제 가게 문 닫고 빼갈이나 한 잔 하러 갈까 했는데. 오늘은 틀린 모양이다.

골피 그래요? 그럼 가서 한 잔해요.

성지 됐어. 이미 문도 닫았을 텐데.

골피 괜찮아요. 빼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S#29. 성지의 약국 앞 (밤)

약국의 불이 꺼지고 안에서 성지와 골피가 나온다.

성지, 문을 잠근다.

성지 골피가 샴파 좀 내려줄래?

골피 네.

골피, 셔터를 내리는데 멀리서 병준이 시루떡 한 덩이를 먹으면서 걸어온다.

골피 (셔터를 내리고) 갈까요, 그럼?

병준 마사장, 여깁었어? (골피 옆에 있는 성지를 의식한다)

골피 안녕하세요, 사장님.

병준 응, 그래. (성지에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우리 구면이죠?

성지 (성의 없게) 예.

골피 사장님! 어디 가시나 봐요.

병준 응! 개업도 했으니까, 주변에 인사도 할 겸 떡 돌리고 왔어. (성지를 보고) 아, 약사셨구나. (주머니에서 봉지에 든 시루떡을 꺼낸다) 떡 좀 드실래요? 오늘 만든 떡이라 쫄깃쫄깃한 게 아주 기뻐차요. 둘이 먹어도 하나 죽어도 모를걸요?

성지 그럴까봐 제가 소화제를 파는 겁니다. (골피에게) 이제 갈까?

병준 그럼 잠깐만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놀러 오세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과 상품권을 준다) 제가 좋은 자리말아 놓을게요.

성지, 병준에게 형식상으로 인사하고 자리를 피한다.
병준은 멀어져가는 성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성지 (명함을 보고) 뭐야? 이 근처에 게임장 냈어? 재수 없다.
골피 그래도 사람은 착하던데요? 아는 것도 많고. 서울대 나왔대요.
성지 서울대 나와서 왜 이려고 있대?

성지, 받은 명함을 바닥에 버린다.

S#30. 골피의 중국집 (밤)

어두운 중국집 안, 하나의 조명만 켜졌다.
그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 성지가 앉아있다.
골피, 짬뽕 국물에 빼갈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골피 탕수육이라도 해올까요? 고기 좀 남은 거 있는데.
성지 됐어. 빼갈에 짬뽕국물이면 됐지 뭐.
골피 역시 성지씨는 중국 요리를 먹을 줄 안다니까요.

성지가 골피의 술잔에 술을 따라준다.
골피 역시 성지의 잔에 술을 따른다.

성지 골피랑 결혼할 여자는 좋겠네. 이렇게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골피 에이, 누가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성지 왜? 골피가 어디가 어때서?(술을 들이킨다)
골피 제가 뭐 불게 있다고요. 모아둔 돈이 있나요,
성지 (술잔에 술을 따르며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골피 생긴 게 잘 나길 했나요,
성지 (술을 마시고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골피 가방끈도 짧고,
성지 (술을 따르고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골피 중국집에서 주방장이나 하고 있는데요, 뭐.
성지 (술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인다)
골피 게다가 화교잖아요.

골피, 말을 멈추고 그런 성지를 바라본다.
성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골피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다.

골피 성지씨?

성지 (놀라며) 미안. 하하하, 이것도 오랜만에 마시니까 금방 취하네.

골피 솔직히 누가 저 같은 놈을 좋아라 하겠어요.

성지 골피가 어때서? 여자라고 다 조건을 따지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여자가 골피 앞에 나타날 날이 있을 거야, (술잔에 술을 따르며) 에잇 내가 십년만 젊어도 어떻게 해보는 건데 말이야.

골피 정말요? (호뭇하게 웃으며) 그러는 성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성지 나? 글썸.

골피 성지씨야 말로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성지, 자신의 술잔에 술을 따르려고 하자 골피가 뺏아서 술을 따라 준다.

성지 아니야. 그런 거. 그냥...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골피 에이, 성지씨가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도 완벽한데요.

성지 누군가를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직까진. (술을 마시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원하는 건 결국 여자 몸통이고, 그것도 지겨워지면 떠나게 돼 있다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직은 남자 만나기가 좀 그래.

골피 성지씨는 진짜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남자라고 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건 표현 방식일 뿐이지 그걸 위해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지, 씹쓸하게 술을 마신다.

성지 글썸. (씹쓸하게)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까?

골피 그럼요, 제가 증인인데요.

성지 골피 같이 착한 남자가 얼른 내 앞에 나타나야 할 텐데. 큰 일이다. 여자 나이 서른이면 개도 안 물어간다면서.

골피 에이, 성지씨 정도 하는 여자 싫다고 하면 그 놈이 개놈이죠. 기다려 봐요. 분명 성지씨 앞에도 좋은 남자가 나타날 테니까.

성지, 골피를 향해 술잔을 흔들고, 골피와 성지 건배를 한다.

S#31. 골피의 중국집 (다음날 오후)

점심 시간이 지난 중국집 내부는 한산하다.

테이블 군데군데 빈 자장면 그릇이 있다.
골피는 빈 그릇을 치우고 있고 홀에는 병준 홀로 앉아있다.
골피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병준 그러니까 도자기 집이 사람이 왕씨 아저씨네고, 그 옆에서 왕
 만두 집 하는 사람이 사씨 아저씨다 이 말이지?
골피 (주방에서 들리는 목소리) 네. 그렇다니까요.

병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한다.
골피가 주방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자 병준 메모를 주머니 속에 넣는다.
골피, 병준의 앞에 볶음밥을 올려놓는다.

병준 그 흥관장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소림사에서 무술 하던
 사람 맞아? 그렇게 살찌가지고 발차기나 제대로 하겠냐?
골피 지금은 좀 그래도 옛날엔 날라 다니셨다니까 그러네. 괜히 이소
 룡이랑 싸웠겠어요.
병준 날기는 뭘 날리? 난 그 양반 걸어 다니는 것도 신기하더라. 보니
 까 관절도 안 좋아 보이고. 그 몸으로 유술 도장하니까 손님이
 없지. 그리고 이소룡은 소림사 출신 아니야. 미국 사람이지.
골피 이소룡이 미국 사람이라고요? 아~그럼 이소룡도 화교였구나.
병준 (볶음밥을 자장에 비비며) 그런데 어제 그 여자 말이야.
골피 성지씨요?
병준 아, 그 여자 이름이 성지야? 그래 그 성지라는 여자 원래 성격이
 그 모양이야?
골피 성지씨가 왜요?
병준 얼굴은 반반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까칠해?
골피 까칠하긴요. 사장님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지씨야 말로 진짜
 천사라고요.
병준 천사? 천사는 개뿔, 우리 집 똥개도 그것보단 착하겠다.
골피 사장님,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우리 화교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만 아파도 치료비가 많이 들
 거든요. 그런데 성지씨는 약도 싸게 지어주고, 아프면 주사도 놔
 주고 우리한테 살아있는 나이팅 게일이라고요. 그런 분을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똥개에 갖다 붙이세요, 진짜
병준 왜 화를 내고 그래?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혼잣말로) 그런데
 그렇게 장사해서 뭐 남는 거나 있나?
골피 어머니가 무슨 산부인과 병원 원장이래요. 그러니까 약을 좀
 싸게 들여오겠죠.

병준 오, 병원장 딸이야?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은 했고?
골피 서울대 완전 실망이네. 성지씨가 어딜 봐서 아줌마로 보여요?
 처녀예요. 처녀.
병준 아직도 안했다고? 조건이 까다롭나봐?
골피 제가 두 손 두발, 열 발가락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못 맞춰요? 나이팅 게일이 조건 따지고 결혼 할 것 같아요?
병준 그럼 왜 안했대?
골피 아직 저 같이 순수한 사람을 못 만났다나 뭐라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 쉽나요? 저 같은 남자 말이에요.

골피, 흐뭇하게 웃는다.

반면 병준은 진지해지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S#32. 약국 (늦은 저녁 무렵)

병준이 들어온다.

성지, 병준임을 확인하고 보던 책을 계속 읽는다.

병준 안녕하세요.
성지 뭐 드려요.
병준 비타민 하나 주세요. 좋은 걸로다가.

성지, 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성지 (혼잣말로 작게) 무식엔 약도 없는데... 만 삼천 원이요.
병준 저기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나 좀 합시다.
성지 만 삼천 원이요.
병준 내 이름 알아요? 나 윤병준이라고 하는데.
성지 어제 명함 줬잖아요. 돈이나 주세요.
병준 그러지 말고 우리 인사나 좀 합시다.
성지 돈이나 주세요.
병준 성지씨라 그랬죠? 성지씨,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성지 노름쟁이가 좋은 사람이란 소리는 또 처음 듣네요. 안 살 거예
 요?

성지, 병준 앞에 있는 약을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자 병준이 재빨리 약을 잡는다.

병준 정말 너무하시네.
 성지 살 거면 돈이나 좀 주세요.
 병준 나도 손님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성지 돈을 줘야 손님이죠. 돈 안 주면 도둑이에요.
 병준 성지씨, 친구 없죠?
 성지 네?
 병준 쉬는 날이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책이나 보고, 집에만 있
 죠?
 성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병준 내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대개 모범생들 그렇잖아요.
 성지 저기요, 잡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주시죠.
 병준 됐어요. 안 살래요. 나는 같이 장사하는 처지에 인사나 좀 할까
 하고 왔더니, 이런 거 보다요, 고스톱 한 판 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나 피로회복에나 더 좋을 것 같네요. 평생 좁아터진 약국
 에서 약이나 파슈. 그러니까 시집을 못가지. 싸다고 해서 왔더니
 싸지도 않고. 뭐 이래?

병준, 약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고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성지, 병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웃는다.

성지 저기 이봐요, 아저씨.
 병준 (뒤돌아보며) 왜요? 아줌마.
 성지 아저씨 지금 주제넘은 거 알아요?
 병준 모르겠는데요, 아줌마.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병준과 성지.

성지 그러지 말고 나랑 한판 쏘읍시다.
 병준 뭐라고요?
 성지 나랑 한 판 쏘으자고.

S#33. 약국안의 방 (저녁)

방 가운데 담요가 깔렸다. 그 사이를 두고 마주앉은 성지와 병준.
 병준이 고스톱 패를 섞고 있다.
 병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병준 난요, 상대가 여자라고, 또 초보라고 해서 절대 봐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성지 (짜증나는 듯) 그냥 좀 하죠.
병준 나중에 가서 판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점 백이죠?
성지 (혼잣말로) 사내새끼가 겁은 많아가지고...점 천!
병준 괜찮겠어요?
성지 아저씨 걱정이나 하세요.
병준 쿨.

패를 나눠준다. 성지 자신의 패를 확인한다.

CUT TO

맞고를 치는 성지와 병준,
성지, 제법 많은 점수를 땀다. 반면 병준은 피박에 광박 상태에 놓여있다.

성지 원 고.

아직 병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다.

성지 투 고.
병준 제법 하네요.
성지 쓰리 고.
병준 웬만하면 스톱 하시죠.
성지 못 먹어도 고. 포 고.

병준, 패를 내려놓는다. 백이다.

병준 에헤, 자 뺏 했네.
성지 (묘하게 웃으며) 자 뺏 좋아하네.

성지, 패를 내려놓는다. 짝쓸이다.

성지 오케바리 짝쓰리. 오늘 패가 짹 짹 달라붙는데요?
병준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걸요? 나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았거든요.
성지 비장의 카드 좋아하네. 파이프 고.

CUT TO

성지, 패를 내려놓는데 뻑이다.

아쉬워하는 성지에 반해 병준의 표정엔 여유가 있다.

병준, 패를 내려놓는다.

병준, 무릎을 탁 친다. 고도리에 초단이다.

병준 옳다쿠나. 해 냈다, 해 냈어. 고도리에 초단이니까 팔 점 맞죠?

성지 뭐야? 언제 고도리 했어요?

병준 아줌마! 노름판에서는요 너무 욕심부리다보면 언젠간 망해요.
(판을 정리하며) 돈이나 주시죠.

성지 다음 판 묶고 따블로 가죠.

병준 이 아줌마 어디서 개수작이래. 따블은 무슨... 돈이나 줘요.

성지 (지갑에서 팔천 원을 꺼내 준다) 쪼잖아하게...

병준 잠깐만요, 선수끼리 왜 이래요? 고박은 따블인 거 잊었어요?

성지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 신경질적으로 던진다) 가져, 가져.

병준 약 값 벌었네.

성지 쉬어요. 빨리.

병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툭툭 던다.

병준 아까 약값 만 삼천 원 이라고 했죠?

성지 이 아저씨 어딜 가? 완전 따고 배짱이네? 얼른 안 샀아요?

병준 (시계를 보고)어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게 문 안 닫아요?

성지 남이 닫든 말든 상관 말고 샀기나 해요. 어서!

병준 잘 놀았습니다.

성지 어딜 가? 지금 남의 돈 가지고?

성지, 병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안 놔 준다.

병준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병준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이거 안 놔요?

성지 절대 그냥은 못가지. 어디서 따고 배짱이야?

병준 알았어요. 알았어. 따고 배짱 안하면 되잖아요. 내가 쓸게요.
됐죠?

S#34. 노래방

어두운 조명 아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병준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병준의 모습이 분위기 있어 보인다.

병준, 토이의 <좋은 사람> 노래를 부르고, 그 모습을 진지하게 성지가 바라본다.
병준을 바라보는 성지, 병준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고
어색한 웃음으로 병준의 시선을 피한다.

골피 (E) 성지씨는 진짜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남자라고 다 그런 생각
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건 표현 방식일 뿐이지 그걸 위해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
요.

S#35. 거리(밤)

가로수 길을 병준과 성지가 걷고 있다.

성지 병준씨에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노래도 잘하고, 노름도 잘하고.
병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공부 빼고는 다
잘했어요.

성지 에이, 거짓말 말아요.

병준 진짜예요. 제가 옛날부터 공부 빼곤 웬만한 건 잘했어요.

성지 겸손도 지나치면 재수 없는 거 알아요? 병준씨, 서울대 나왔다면
서요?

병준 (모르는 척) 또 그 애긴 어디서...

성지 골피한테 얘기 들었어요.

병준 서울대가 뭐 별건가...

성지 솔직히 나 병준씨, 이해가 안 돼요. 서울대 나왔으면 웬만한 대기
업에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이런데서 게임장 하고 있는 게.

병준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진 대기업 다녔어요. 거기서 실장까지 해
봤으니까 해볼 만큼은 해 본 셈이죠. 그런데 저랑은 잘 안 맞더
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성지 뭐가 안 맞았는데요?

병준 세상에 물드는 내 자신이 싫었거든요.

성지, 골피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성지 멋있다.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때려
치다니. 기왕 때려 친 거 좀 괜찮은 일 하지...

병준 그게요... 사실 제가 게임장 하는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성지 네?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병준 우리 아버지는 일 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집에서는 거의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신문만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이죠. 그런데 유치원 땐가 부모님이랑 함께 소풍을 가야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서트

병준의 집

유치원생의 병준, 집안으로 들어온다.

거실에서 젊은 시절의 윤희장이 신문을 보고 있다.

병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간다.

주방에서는 혜숙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보고 있다.

병준, 유치원 가방에서 가정 통신문을 꺼내 혜숙에게 건넨다.

가정 통신문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가야된다는 내용이 있다.

혜숙 놀이동산? 난 안 돼. 그날 약속이 있어.

유치원생의 병준, 가정 통신문을 챙겨서 주방을 나간다.

혜숙 니 아빠한테 한 번 말해보렴.

윤희장, 돋보기를 낀 채 가정 통신문을 들여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윤희장, 돋보기를 내리고 병준을 바라본다.

윤희장 꼭 가야되는 거냐?

병준, 고개를 끄덕인다.

병준 (E)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왔는데 나만 아버지가 따라 오셨어요.

놀이동산

바이킹 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드는 어머니들, 그 가운데 윤희장은 없다.

바이킹을 타는 아이들 사이에 윤희장이 끼어 앉았다.

아이들 모두 공포에 떨며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윤희장 혼자 즐거워한다.

윤희장, 바이킹이 올라갈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병준, 고개를 푹 숙인 채 살며시 윤희장을 바라본다.

병준 그날 하루 동안 아버지는 그 놀이동산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
 즐거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하시던 때를 본 적이
 지금도 거의 없어요.

현재시점으로 돌아온다.

다시 길을 걷는 병준과 성지.

병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웃기 싫어서 안 웃었던 게 아니었어
요. 웃을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성지 꽤 감동적이네요. 어른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대기
업에서 도망쳐 나와서 성인 오락실을 하다니. (사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껍이나 좋아하시겠네요.

병준, 한대 맞은 듯 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고,
성지, 자신의 옆에서 걸던 병준이 없자 뒤를 돌아본다.

성지 방법이 특이하긴 해도 병준씨 나름대로 효자네요.

병준 효자는요, 우리 아버진 제 동생만 좋아하시는데요, 뭐.

성지 하긴, 그럴 만도 하네요.

병준 (당황한 듯) 남들이 비웃을지 몰라도요 두고 보세요. 저요 꼭
성공해서 보란 듯이 해 낼 테니까.

성지 게임장해서 놀이동산 지으려면 백년을 걸리겠는데요?

병준 설마 그렇게까지 걸리겠어요.

성지 (웃으며) 병준씨 보면 명청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어요.

병준 순수한 거예요. 노름쟁이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성지 그렇다고 하죠, 오늘은.

병준 성지씨, 노름판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청단이든 홍단이든 3점이
긴 매한가지다.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즐기면
서 지내요. 오늘처럼 나랑 고스톱도 치면서요. 가끔 한 번 시원하
게 웃는 게 성지씨가 파는 그 어떤 약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요.

성지, 병준의 말에 웃음 짓는다.

성지 (미소 지으며) 병준씨 은근히 로맨틱한 구석이 있는데요?

병준 거 봐요. 성지씨 웃으니까 오늘 피로 다 풀린 것 같네.

성지, 걸음을 멈춘다.

그들의 앞에 큰 저택이 있다.

성지 다 왔어요. 우리 집이에요.

병준, 성지의 집을 바라본다. 꽤 크다.

병준,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성지 즐거웠어요. 덕분에.

병준 들어가요.

성지, 초인종을 누르려다 다시 병준을 돌아본다.

성지 병준씨, 사실 병준씨한테 까칠하게 군 거 노름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럼 왜 그런 건데요?

성지 병준씨 비호감이라 그런 거였어요.

병준 그래요? (멋쩍게)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그랬어요.

성지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병준, 성지를 등지고 내려간다.

성지, 초인종을 누르려다 누르지 않고 병준을 돌아본다.

병준은 이미 멀리 가있다. 병준, 성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성지 병준씨, 괜찮다면 내일 다시 한 판 쪼울래요? 나 섯다는 자신 있는데.

병준 싫은데요.

성지 (당황한 듯) 미안해요. 내가 잠시 미쳤나봐요.

병준 섯다로 쪼으는 건 싫은데요? 홀라라면 모를까.

성지 (해맑게 웃는다)

병준 들어가요. 내일 봐요.

성지, 초인종을 누른다.

성지의 집 2층에서 명진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S#36. 은주의 집 (그날 밤)

은주, 병준의 등에 부황을 떠주고 있다.

은주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고스톱도 못 치는 년이 무슨 섯다야? 안 그래? 뽕을 뿜아버려, 오빠.

병준 뽕을 뽑긴 무슨 뽕을 뽑아? 씨발, 너 뽕빨 나게 맞고 싶냐?

은주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해? 웃겨, 증말.

병준 넌 정말 그 여자가 섯다를 잘 해서 나한테 섯다를 하자고 한 것
 같냐? 아니, 난 섯다가 자신 없어서 홀라로 하자고 한 것 같아?
 섯다는 일종의 통로라고. 모르겠어? 그녀와 나를 이어주는 만남
 의 도구라고, 하긴, 너같이 무식한 애가 비유나 상징, 함축과
 비약을 알긴 하겠냐? 제발 책 좀 읽어라.

은주 섯다면 섯다고 홀라면 홀라지, 무슨 도구고 통로야. 그리고 나
 안 무식해. 나도 대학물 먹었어.

병준 어, 그래? 대학물 먹었어? (노려보며) 진짜 제대로 된 물 한 번
 먹어볼래? 물 한번 진하게 멕여줘?

은주 나도 숙대 나왔다니까. 진짜야.

병준 어, 그래요? 숙대 나오셨어요? (방을 둘러보며) 여기 쑥대발 한
 번 만들어볼까? 어디 오랜만에 고향 열차 한 번 태워줘?

병준, 은주를 노려본다.
은주도 병준을 같이 바라본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은주 이내 고개를 수그린다.

은주 미안해. 오빠.

병준 너 내가 거짓말 하지 말랬지? 야, 숙대가 무슨 군덴줄 아냐? 개나
 소나 다 가게.

은주 (혼잣말로) 지도 돈 주고 학교 나왔으면서 나한테만 지랄이야.

병준, 부황을 뜨다가 확 돌아선다.

병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돈 주고 학교를 나와? 너 내가 그 애기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어? 안 했어?

병준, 등에 붙은 부황을 때서 은주에게 던진다.
병준의 등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병준 꺼져. 이 쌍 년아.

은주 내 집인데 내가 왜 꺼져. 오빠나 꺼져. 짜증나게 나한테 짜증이야.

병준 저 년이 진짜.

S#37. 성지의 집 주방 (같은 시간)

식탁에서 명진과 성지가 식사중이다.

명진의 표정이 싸늘하다. 성지가 명진의 눈치를 본다.

둘 사이에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른다.

명진, 성지에게 식사 내내 성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식사를 한다.

성지 엄마

명진 (침묵)

성지 엄마!

명진 왜?

성지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명진 왜?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성지 아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말이 없이 밥을 먹는 명진,

성지는 명진의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성지 아무 말이라도 좀 해요.

명진 오늘 어떤 애가 낙태하러 왔어. 스무 살도 안 된 앤데 이번이 세 번째야. 개가 그러더라. 그래도 단골인데 좀 싸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애 아버지 데려오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진짜 애 아빤지 모르겠대. 의심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성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금속 젓가락이 유리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차갑게 들린다.

성지 밥 먹는데 다른 애긴 없어?

명진 남자들이란 정말...성지야 난 너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남자를 만났으면...

성지 (명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먼저 일어날게요.

성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방을 나간다.

S#38. 은주의 집 (늦은 밤)

병준과 은주, 침대 위에서 섹스를 하고 있다.

병준이 은주 위에 올라와서 정상 채워 중이다.

그러나 이불로 상반신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이 드러나진 않는다.

은주 솔직히 그년이랑 나랑 다를 게 뭐야. 그년은 가슴이 세 쪽이라도 되냐? 그년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병준 그걸 꼭 말을 해야 아냐? 얼굴도 반반하지, 똑똑하지, 병원장 딸이라니까 집안도 뭐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뽕리진 않을 거고.

은주 오빠 그런 애 말고 나 같은 애 만나야 돼.

병준 저주를 해라, 저주를.

은주 솔직히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학력 좋고 집안 좋은 애들이 뭐가 아쉽다고 오빠를 만나겠냐고. 오빠가 잘생기기를 했어? 똑똑하기를 해? 그렇다고 남다른 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선보려 가서 동생 전화번호나 알려주고 오지 빙신아.

병준, 섹스를 멈추고 은주의 위에서 내려온다.

병준 씨발 년아, 알지도 못하면 아가리 닥쳐.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은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닌 애가 오빠랑 헤어지고 나서 오빠 동생 이랑 왜 만나?

병준 이번엔 달라. 그러니까 좀 닥쳐. 씨발 년아.

은주 다르긴 뭐가 달라. 여태 그렇게 당하고 모르겠어? 똑똑한 애들 죄다 오빠 이용만 해먹었잖아. 진짜 오빠를 사랑하는 건 바로 나라고.

병준 좀 닥치라니까. 이번엔 진짜 그런 애 아니야.

병준, 팬티를 입고 옷가지를 챙겨 입는다.

병준, 집 밖을 나간다.

은주 어디 가!

S#39. 홍관장의 무술도장 (같은 시각, 밤)

수많은 화교들이 모여 앉아있다. 우리의 반상회와 비슷한 형태의 모임이다. 홍관장이 대표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칠판에 무슨 주제를 적고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왕씨와 왕씨 부인이 티격태격한다.

홍관장이 이를 보고 뭐라고 하려다가 참고 다시 뭐라고 하려다가 참는다.

결국 홍관장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다.

홍관장 아줌마. 아줌마!

왕씨 부인 네.

홍관장 지방 방송 꺼요. 좀.

왕씨가 왕씨 부인을 툭 건들고 왕씨 부인은 잠잠해진다.

홍관장이 다시 뭔가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왕씨부인이 왕씨에게 뭐라고 한다.

홍관장 아줌마! 왜 그러냐고? 반상회 중에 자꾸 시끄럽게 왜 그래요?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좀 하지.

왕씨 부인 홍관장님. 타운 앞 사거리에 게임장 생긴 거 아시죠?

홍관장 사거리 앞에 게임장? 알지.

왕씨 부인 그거 관장님이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그
게임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홍관장 아줌마가 미치겠는 걸 왜 나한테 그러냐?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돈 내고 장사하는데.

왕씨 부인 관장님은 우리 차이나타운의 대표잔데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
면 안 되죠. 요 사람이요. 요즘 거기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 드나
들어요. 장사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간다니까요.

사람들 어느 정도 동조하며 웅성거린다.

듣고 있던 왕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왕씨 쓰별, 쪽팔리게 자꾸 그럴 거야? 이 애길 왜 이런 데서 하냐고.
쪽팔리게!

왕씨부인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돈 쓰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왕씨 내가 언제 돈 잃고 오든? 이놈의 여편네는 돈을 갖다 쥐도 지랄
이예요. 지랄이!

홍관장 왕씨, 좀 적당히 가. 마누라가 눈 뒤집히는 것 보니까 게임에
환장을 했구만. 환장을 했어.

왕씨 관장님도 그런 말 하실 처지가 아니죠. 갈 때마다 계시면서. 게임
장 김양이 그러드만요. 게임기 세대는 홍관장님이 맞아봤으니까
딴 데 앓으라고.

사람들, 왕씨의 말에 웃음을 터뜨린다.

홍관장 왕씨. 넌 그게 지금 여기서 할 소리야?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마누라한테 욕이나 쳐 얻어먹지. 자식이.

왕씨 부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홍관장 아줌마도 똑같아요. 남편이 좀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반상회에서 할 애긴가.

사람들, 또 다시 웃음이 터지며 웅성거린다.

홍관장 자, 자, 일단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즐기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고 하니 일단 지켜봅시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황관장의 말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다시 황관장의 말에 집중을 한다.

골피는 회의에 관심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방바닥만 긁고 있다.

S#40. 무술 도장 밖 (밤)

반상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무술 도장 밖으로 단숨에 쏟아져 나온다.

골피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홍관장이 골피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홍관장 골피야, 무슨 걱정 있냐?

골피 걱정은요, 아니에요.

홍관장 골피야, 비록 니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널 친 아들처럼 생각 하고 산 거 알지? 어려운 거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골피 네.

홍관장 우리가 알고 지낸지도 20년이나 흘렀구나. 세월 참 빠르다.

골피 관장님, 관장님은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많은 화교들을 보셨죠?

홍관장 그럼. 차이나타운을 거쳐 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지. 그런데 그건 왜?

골피 화교 중에 혹시 한국인이랑 결혼한 사람 보셨어요?

홍관장 여자의 경우는 제법 있었지. 한국은 여자보단 남자가 많은 나라니까.

골피 그럼 남자는요?

홍관장 여자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말이야, 여기서 돈깨나 번 사람의 경우 있긴 있었지.

골피 그럼 아직 돈을 못 번 사람의 경우는요?

홍관장 돈 없는 남자의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그놈이 굉장히 미남이었지. 장국영을 빼다 박아서 내가 리틀 장이라고 불렀어.

골피 그럼 혹시 미남이 아닌 경우도 보셨나요?

홍관장 내가 봤을 땐 말이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고 한 숨을 쉰 뒤)

그냥 포기해라.

홍관장, 골피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하더니 나간다.

골피, 한숨을 푹 내쉰다.

S#41. 골피의 중국집(다음날 낮)

골피가 한 손에는 자장면, 한 손에는 탕수육 그릇을 들고 온다.

홀에는 병준이 홀로 앉아 있다.

골피, 병준의 테이블 위에 탕수육 그릇과 자장면 그릇을 올려놓는다.

골피 서비스예요. 탕수육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병준 탕수육이 서비스? 이야, 웬일이래? 잘 먹을게.

골피 드세요. 요즘 손님도 없어서 먹는 사람도 없는데 멸뽕한 고기
 썩히느니 누구 입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죠.

병준 그래? 오늘 탕수육보다 팔보채가 맵기긴 했는데.

골피 그냥 이거나 드세요.

골피, 병준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다.

병준이 자장면을 비비고 있는데 골피가 병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병준, 자장면을 비빈다.

병준 왜? 무슨 할 말 있어? 뭘 그렇게 쳐다봐?

골피 그냥요. 부러워서요.

병준 부럽다니? 뭐가?

골피 그냥, 다요. 사장님은 모든 걸 갖추고 계시잖아요.

병준 내가? 내가 갖추긴 뭘 갖추?

병준, 골피의 말을 대충 들으며 자장면을 먹는다.

병준의 입으로 자장면발이 후루룩 들어간다.

골피 삶에 여유가 넘치시잖아요. 돈도 많으시고.

병준, 골피의 말을 듣다가 입술로 입에 물린 면발을 씹는다.

입 주변에는 잔뜩 자장소스가 묻었다.

병준, 입을 오물오물 거리며 자장면을 씹고 있지만 이미 났이 나간 상태다.

은주 (E) 오빠가 잘생기기를 했어?

골피 옷도 잘 입는 멋쟁이에,
은주 (E) 똑똑하기를 해?
골피 서울대 나왔으니까 엄청 똑똑할 거구,
은주 (E) 그렇다고 남다른 비전이 있어?
골피 30대에 사장님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은주 (E) 여태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만
 당하지, 빙신아!
골피 저는 사장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병준이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쇠 젓가락이 바닥에 부딪치며 차가운 굉음을 낸다.
그 소리에 말을 하고 있던 골피도 깜짝 놀란다.
병준, 고개를 푹 숙인 채 골피의 손을 꼭 잡는다.

병준 그만, 그만해. 제발 그만해 골피.
골피 사장님, 왜...이러세요?

병준이 고개를 든다. 병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두 뺨 위로 흘러내린다.
병준, 옷 소매로 눈물을 닦는다.

병준 씨부랄,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은 처음이야.
골피 네? 탕수육이 뭐가 어째요?

병준, 눈물을 닦아내지만 계속 눈물이 흐른다.
골피는 병준의 이런 모습이 당혹스럽다.

골피 사장님, 혹시 팔보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병준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거나 어려
 운 일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날 찾아와. 알았지? 앞으
 로 날 친형처럼 생각하고.
골피 예? 친형이요?
병준 그래, 자기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날 친형
 처럼 생각해 줘. 이거 내 욕심 아니지?
골피 (얼떨결에) 예?...예.

병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한다.
골피의 시선이 병준을 따라간다.
병준, 이내 걸어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골피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준 (고개를 끄덕이고)

병준, 골피의 부축으로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걷는다.
골피, 황당하게 바라본다.

병준 (나가려다가)동생은 날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이야. 고마워.

골피는 병준 표정으로 병준이 나간 출입구를 바라본다.
골피, 머쓱한 듯 자신의 머리만 긁적거린다.

S#42. 성지의 약국 (낮)

성지, 앉아서 책을 보고 있지만 표정이 어둡다.
이내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책을 덮는다.
병준이 약국 안으로 들어온다.

성지 어서 오세 (병준임을 확인하고) 병준씨.
병준 성지씨, 어제 잘 들어갔어요?
성지 네. (병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부었는데. 병준씨, 울었어요?
병준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아니에요, 별일. 나보단 성지씨 얼굴이 더
 어두운데요?
성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준 돈 잃을까봐 걱정 되서 그러는구나? 잊지 않았죠? 저녁때 한
 약속.
성지 (무겁게) 네.
병준 그럼 이따 봐요.
성지 그래요. 이따 봐요.

병준, 나가려다가 다시 뒤돌아본다.

병준 성지씨, 그거 알아요? 성지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웃는 얼굴
 이 제일 예쁜 여자라는 거.
성지 네? (수줍은 듯 웃으며)
병준 거봐요. 얼마나 예뻐요.

병준, 성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성지도 병준에게 흔든다.

병준, 성지의 약국을 나간다.

성지, 병준이 나간 후에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

S#43. 골피의 중국집 밖 (늦은 저녁)

중국집 안의 조명이 꺼지고, 골피가 나온다.

쪼그려 앉아 문을 잠그는 골피.

문을 잠그고 일어서는데 홍관장과 왕씨, 사씨가 지나간다.

사씨 이봐, 골피 벌써 문 닫는 거야? 자네도 오늘 땡쳤구만?

골피 그렇죠, 뭐. 어디들 가시나 봐요.

왕씨 게임하러 가는데, 골피도 같이 가볼터?

골피 아니에요. 저야 돈도 없고... 다녀오세요.

홍관장 누가 돈 잃으러 가냐? 따러가는 거지. 돈 십만원만 챙겨와. 내가
 나만의 비법을 알려 줄 테니까.

왕씨 그래. 같이 가자고. 우리랑 가면 적어도 본전은 친다니까?

골피 전 됐어요. 다녀들 오세요.

왕씨 젊은 사람이 이래 모험심이 없어서 어찌누?

홍관장 됐어. 싫다는 사람 냅두고 그만 가자고.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놓
 쳐. 그럼 골피 나중에 봐.

홍관장 일행, 자리를 뜬다.

골피, 그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S#44. 약국 밖 (늦은 저녁)

골피, 약국의 안을 바라본다.

약국 안에는 성지가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다.

무슨 상상을 하는지 홀로 거울을 보고 웃는 성지,

골피는 그런 성지를 동경하듯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때 성지가 고개를 들다가 골피와 시선이 마주친다.

성지, 골피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S#45. 약국 안

약국 안으로 골피가 들어온다.

성지, 골피가 들어오자 거울을 아래로 치운다.

성지 골피, 벌써 문 닫은 거야?
골피 네.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성지 았아. 뭐라도 마실래?

골피, 자리에 앉는다.

성지, 냉장고에서 박카스를 꺼내 골피의 앞에 내놓는다.

성지 표정이 어두운데? 마사장님 때문에 그래?
골피 아니에요.
성지 아니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뭘. 그럴수록 골피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쳐져 있으면 되겠어?

박카스 병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골피, 고개를 숙인 채 박카스 병을 만진다.

병에 있던 물방울이 또르륵 흘러내린다.

성지 골피가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다 기운 없는데?
골피 (힘없이 웃는다) 식사는 하셨어요?
성지 아니, 아직. 이따 먹어야지.
골피 배고파서 어떡해요. 저희 집 가서 팔보채라도 드실래요?
성지 팔보채? (미안한 듯) 이거 어찌지? 오늘은 약속이 있거든.
골피 그럼 어쩔 수 없죠. (자리에서 일어난다) 잘 마셨어요.

골피,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

성지, 축쳐진 골피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성지 골피야, 내일 저녁 밥 먹으러 들릴게.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골피, 성지의 말에 환하게 웃는다.

표정을 숨기고 뒤돌아 성지를 본다.

골피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성지 골피가 하는 건 다 좋아.
골피 (웃으며) 제가 하는 건요? (행복한 웃음) 기대 하세요.
성지 그래. 좀 웃어. 골피는 웃는 게 어울려.

S#46. 병준의 게임장 앞 (밤)

콜피, 신나게 뛰어간다. 환히 웃는 그의 얼굴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인다.
길을 걷는 콜피, 무심결에 병준의 게임장이 눈에 띈다.
병준의 게임장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콜피,
게임장 안으로 몇몇의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있다.

병준 (E) 마사장은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마사장도 날
 형처럼 생각해 줘. 이거 내 욕심 아니지?

콜피, 게임장 안으로 들어간다.

S#47. 병준의 게임장 (동 시간)

게임장 안에는 흥관장, 왕씨, 사씨를 비롯하여 화교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있
다. 흥관장의 게임기에서는 두 장의 상품권이 나온다.
정장 차림의 병준, 게임장 사무실에서 나와 입에 구취제거제를 뿌린다.
자신의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는데 콜피가 들어온다.

콜피 형님!

주위 화교들의 시선이 콜피에게 집중된다.

왕씨 콜피, 안 온다더니 돈은 가져왔어?
콜피 아니요. 게임하러 온 게 아니라...(병준을 발견하고) 형님!
병준 (반갑게) 어쩐 일이야, 동생! 게임하러 왔어?
콜피 아니요. 형님이랑 의논 할 게 좀 있어서요.
병준 나랑? 뭔데?

콜피, 주위를 둘러본다.
흥관장과 왕씨를 비롯한 화교들이 콜피와 병준을 주목하고 있다.

콜피 여기서는 좀 그렇고,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 가게 가서 팔보채라
 도…….
병준 팔보채? (시계를 보며) 이런? 내가 지금 약속이 있는데.
콜피 그래요? (시무룩해져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오늘 팔보채 먹긴
 글러먹은 날인가 봐요.
병준 우리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내일 점심 때 갈게.
콜피 그러세요, 그럼.

골피, 축쳐진 채 게임장을 빠져나가는데 게임에 열중하던 홍관장이 골피를 부른다.

홍관장 골피, 좀 놀다가지 그래. 나 벌써 오 만원 땀어.

골피 아니에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병준에게)형님! 저 갈게요.

병준 그래, 내일 보자고. 점심때 들리게.

골피 (힘없이) 예, 그러세요.

골피, 뒤돌아서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간다.

이때 왕씨, 잭팟이 터졌는지 환호한다.

병준, 골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숨을 내쉰다.

병준 동생, 그러지 말고 좀 놀다가지 그래.

골피 아니에요.

병준 동생이 처음으로 이 형을 찾아왔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골피 전 돈도 없는데요.

병준, 골피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자리에 앉힌다.

병준 형 가게에 와서 그 무슨 섭섭한 소리야?

병준, 지갑에서 수표 세장을 꺼낸다.

병준 김양아!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꿔와 봐.

S#48. 레스토랑 (그날 밤)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

성지, 메뉴판을 보다가 덮고 테이블 위에 놓는다.

성지 홀라 치자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레스토랑이에요.

병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일단 밥부터 먹고 해요.

성지 그래도 차이나타운에 식당이 천지때깔인데.

병준 맨날 짜장면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가끔 이런데서 분위기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성지 이런데 비싸잖아요.

병준 나 성지씨한테 이런 것 좀 사줄 능력은 돼요.

성지 알아요, 병준씨는 노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니까요.

성지의 말에 병준은 멧쩍은 웃음을 짓는다.

병준 그리고 보니까 성지씨랑 금강산같은 매력이 있어요.

성지 금강산이랑요?

병준 네, 성지씨도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하거든요. 혹시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숨겨둔 거 아니에요?

성지 (수줍게) 몰라요.

S#49. 게임장 (동 시간)

사람들과 동떨어진 자리에 골피가 앉아있다.

화면을 주의깊게 응시하는 골피, 버튼위에 살며시 손이 다가간다.

병준 (E) 이것도 다 요령이라고. 그냥 버튼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
야. 이 안에도 공식이 있는 거거든?

게임기 화면이 빠르게 돌아간다.

골피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병준 (E) 일단 대어가 아니면 그냥 놔주라고. 그런 건 잡아봤자 돈도 안
되거든.

화면에 피라미가 뜨자 골피 대충 버튼을 누른다.

첫 번째 게임은 그렇게 끝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

골피, 버튼을 누르자 첫 화면에 가오리 그림이 뜬다.

병준 (E) 가오리정도 잡으면 그건 대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
처음에 가오리를 잡으면 속으로 13초를 세는 거야. 빨리 세어도
안 되고 늦게 세어도 안 돼.

골피 (E) 일, 이, 삼, 사

S#50. 레스토랑 (동 시간)

성지, 스테이크를 썰고 있다.

병준, 와인 한 모금 마신다.

병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병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럽다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다고. 그런데 어제 성지씨가 예상치도 못하게 청단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많이 부족한 놈이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여자라면 내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겠다. 이 여자라면 공짜로 광을 팔아도 아깝지 않겠다.

스테이크를 썰던 성지, 병준의 이야기에 멈칫 한다.

성지 병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병준 성지씨, 정말 모르겠어요?

S#51. 게임장 안 (동 시간)

골피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다.

골피, 마른 입술을 살포시 깨문다.

골피 (E) 열 하나, 열 둘, 열 셋.

골피, 버튼을 누른다.

첫 번째 화면에 이어 두 번째 화면에도 가오리가 뜬다.

골피의 반대편에 앉은 왕씨가 고개를 돌려 골피의 화면을 본다.

왕씨,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씨를 톡 치며 골피의 게임기 쪽을 가리킨다.

병준 (E)두 번째 그림도 가오리가 뜨면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 대부분 세 번째 그림 맞추는 거에서 실패하는데, 그건 너무 흥분했기 때문이야. 이성을 잃은 거지.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자, 속으로 27초를 세는 거야.

골피 (E) 하나, 둘, 셋, 넷...

S#52. 레스토랑 (동 시간)

병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반면 성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병준 앞으로 더 많은 시간동안 성지씨랑 더 많은 게임을 함께 하고 싶어요. 허락해 줄래요?

성지 병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병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성지씨한테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 말하
 는 거예요.

S#53. 병준의 게임장 (동 시간)

화면속의 그림이 돌아가고 있다.
골피의 주변에 흥관장과 왕씨를 비롯해서 몇 명의 화교들이 몰려든다.
골피의 손이 버튼에 맞닿은 채 누를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왕씨, 스톱을 외칠듯 말듯 입을 달싹달싹 거린다.
흥관장이 왕씨를 주책이라는 듯 때려서 진정시킨다.

골피 (E)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병준 (E) 27초 후엔 망설이지 말고 눌러.

게임기 버튼에 맞닿아있는 골피의 손.
골피, 게임기 화면을 노려본다.
골피, 마침내 버튼을 누른다.
돌아가는 그림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S#54. 레스토랑 (동 시간)

병준, 자신감 넘치는 눈으로 성지를 바라본다.

병준 성지씨, 나만의 잼블러가 되어줄래요?

성지, 병준의 시선을 피한다. 성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
성지, 입술을 깨물고,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긴장한 듯 보인다.

성지 나는요.
병준 성지씨.
성지 나는....

인서트- S#30 골피의 중국집

골피 기다려 봐요. 분명 성지씨 앞에도 좋은 남자가 나타날 테니까.

현재 레스토랑

병준 대답해줘요. 성지씨.
성지 나 아직 남자 사귀어 본 적 없어요. 병준씨 말대로 나 공부밖에
 몰랐던 여자예요. 그래서 연애 같은 거 잘 몰라요. 데이트 할 땐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분명 병준씨가 실망하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병준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군 채 고개를 끄덕인다)
성지 그래도... (머뭇거리며)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요?

병준, 성지의 손을 잡는다. 성지, 밝게 웃는다.

S#55. 게임장 (동 시간)

빙빙 돌아가던 세 번째 그림이 서서히 멈추고
비어있던 마지막 칸에 마침내 가오리 그림이 뜨면서 세 개의 그림이 일치한다.
장내에 잭팟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린다.
골피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모두 환호한다.
왕씨를 비롯한 화교들이 골피에게 행가래를 쳐준다.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그 주변에 모여 박수를 쳐주고 있다.
김양, 환호하는 사람들을 피해 후미진 곳으로 가서 무전을 보낸다.

김양 (무전기에 대고) 사무실, 32번 손님 가오리 터졌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양의 무전기로 김군의 목소리가 타고 나온다.

김군 (E) 예. 사장이 자기 아는 동생이라고 시킨 거예요.

S#56. 백화점 (다음날 오전)

명품 숭이 있는 백화점의 코너를 병준과 골피가 함께 구경하고 있다.
촌스러운 점퍼를 입은 골피 혼자 이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두 세련 됐다.
골피는 매우 상기된 얼굴이다.

골피 정말 손맛이라는 게 저는 요리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데 정말 짜릿한 게 똥꼬 끝에서부터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 손가락 끝을 감싸는 거 있죠. 누르

는 순간 알겠더라니까요. 이거 됐다. 이거 터졌다.

병준 그럼 왕씨, 사씨, 흥관장님 할 거 없이 사람들 전부 다 골피가
가오리 터지는 걸 보고 있었겠네?

골피 그랬다니까요. 헝가레 쳐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병준의 손을
꼭 잡으며) 형님, 고마워요.

병준 나한테 고마울 게 뭐있나. 골피가 잘해서 딴 건데.

골피 무슨 말씀이세요. 다 형님이 알려주신 공식 덕이죠.

병준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그 공식을 알려줘선 절대 안 돼. 알지?

골피 형님두 참!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구요.

병준, 백화점을 두리번거린다.

병준 그런데 동생, 이거 누구한테 선물하는 거야?

골피 제가 항상 신세지는 분이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형님은
아무래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형님은 모든 걸 갖추셨으니까요.

병준 자꾸 내가 뭘 갖췄다 그래. (얼굴에 흐뭇한 웃음이 가득하다)

병준과 골피, 명품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병준과 골피, 명품 핸드백을 살펴본다.

병준, 가방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 가방을 놓친다.

병준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방의 가격을 확인하고)
일, 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걸 좀 과하다 싶은데?

골피 제가 이럴 때 아니고 언제 또 돈이 생기겠어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거 해 드리고 싶어요.

병준 누군데 그래? 혹시 (사이) 동생이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골피 아니에요, 그런 거.

병준 아니긴, 맞는 것 같은데.

골피 아니라니까요.

병준 (씨익 웃으며) 그럼 혹시...나한테?

골피 (정색하며) 그건 더 아니구요.

병준, 좋다 말았다는 듯 표정 굳어버리고

CUT TO

병준, 제법 멋스러운 핸드백을 살펴본다.

그때 골피가 핸드백 하나를 들고 온다.

골피 (자신이 고른 핸드백을 보여주며) 형님, 이거 어때요?

병준 음.... 그 여자 몇 살이나 됐는데?
골피 에이, 형님두 참 끈질기네. 진짜 비밀이라니까요.
병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가 뭐래! 나이에 맞게 사야 될 거 아니야.
골피 아, 그래요? 30대 초반인데 정말 동안이에요.

CUT TO

골피와 병준 계산대 앞으로 왔다.
골피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다.

병준 동생이 연상을 좋아하는구나.
골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S#57. 택시 안 (낮)

병준과 골피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
골피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품에 안고 있다.

병준 동생은 말이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름이 좀 그래.
골피 제 이름이 어디가 어때서요?
병준 그 마골피라는 이름이 원래 옛날에 천민들이 쓰던 성이잖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이름인데 기왕 쓰는 거 좋은 걸로 쓰면 좋잖아.
골피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네요. 어렸을 적에 제가 진짜 천방지축이었다고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병준 그래, 이참에 새로 짓는 게 어때? 가만 보자, 마씨니까 (고민하는 하다가 자신의 무릎을 친다) 옹거니. 마이클! 마이클 어때?
골피 마이클이요?
병준 그래. 마이클은 황제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거든. 팝의 황제가 누구야? 마이클 잭슨 아니야.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아니야. 그럼 중화요리의 황제 역시 마이클이란 말이야. 그게 누구야? 누구겠어?
골피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저요?
병준 이야,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황제가 됐는데? 축하해.

병준, 골피와 악수를 나눈다.

병준 축하한다고.
골피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택시 운전기사, 룸미러로 골피와 병준을 지켜보다가 웃음을 터뜨린다.

병준 나는 동생을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황제로 만들어주는데 동생은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골피 제가 너무하다고요?
병준 그래, 형한테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는 건 형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골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병준 동생의 비밀스런 고민을 해결해줄 단 한사람. 누구야? 누구겠어?
골피 형님이요?
병준 그래, 바로 나야. 그럼 마이클이 가슴속에 담아둔 그 은인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화과자 파는 지혜? 도자기 파는 헤림이? 그게 누구야? 누구겠어?

골피, 손가락을 만지작거린다.

병준 누구겠어?
골피 (쑥쓰러워 하며 간신히 내뱉는다) 성지씨예요.
병준 (무심결에) 축하해. 축하... 뭐야, 이 자식아?

S#58. 성지의 약국 근처 길거리 (낮)

골피는 성큼성큼 걸어가는 반면 병준은 종종 걸음으로 골피를 따라간다.
골피의 표정은 근심이 없는 반면, 병준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골피 기왕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형님도 눈치 채셨겠지만... 그래요, 성지씨가 제 첫사랑이에요.
병준 저기... 골피야. 아니 마이클, 그래도 이건 너무 이른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많이 놀랄 수도 있고... 조금만 참았다 나중에 고백하는 게 어때?
골피 (풀이 죽어서) 역시 형님 생각에도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한 놈인 거.

병준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내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드려. 내 말뜻은...
골피 하긴...저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성지씨같은 여자를...주제도 모르
고 너무 까분 것 같네요. 그냥 돌아가야겠어요.

골피, 시무룩해져서 다시 되돌아가고...

반대로 병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뿜고 골피를 뒤따른다.

병준, 골피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고 위로한다.

병준 아니,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마이클 주제가 어디가 어때서?
마이클 정도면 여자들이 반할만 하지.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골피 (급 화색이 돌며) 정말요?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병준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괜찮은 여자로 소개시켜

골피 (병준의 말을 끊으며) 형님 말 들으니까 다시 용기가 나네요.
역시 고백하는 게 낫겠어요.

병준 잠깐만, 마이클! 용기를 얻은 건 다행인데 내 말뜻은...그러니까...

골피, 다시 뒤돌아 약국 쪽으로 빠르게 걷는다.

골피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파이팅!

병준이 미처 잡기도 전에 골피, 약국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병준 파...이..팅.

병준은 병든 표정으로 골피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59. 약국 안 (동 시간)

성지, 유리창 밖으로 티격태격하는 골피와 병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밖에서 골피가 파이팅을 외치더니 약국 안으로 들어온다.

성지 골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장사 안 해?

골피 네, 오늘은 쉬려고요. 어제 가오리를 잡았거든요.

성지 가오리를 잡았다고?

골피 그런 게 있어요. (사이)이따가 저녁 먹으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지 안 그래도 이따 가려고 했는데.

골피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제 준비하러
고요.

성지 됐어. 난 그냥 짬뽕 한 그릇이면 돼.
골피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좀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성지 난 정말 괜찮은데...무슨 할 말인데 그래? 지금 하면 안 돼?
골피 여기선 좀 그렇고... 그건 이따 저녁 먹으면서...
성지 그래, 그럼 골피가 잘 하는 걸로 알아서 해 줘.

인서트- 약국 밖

병준이 약국 밖에서 성지와 골피가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초조한 듯 약국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한다. 병준, 결국 약국 안으로 들어간다.

약국 안

골피 그럼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팔보채나 탕수육 괜찮죠?
성지 좋지. 그런데 골피야, 오늘 가게 문 닫았다며?
병준 (E) 가게 문 닫았으면 우리 집에서 먹자.

병준이 약국에 들어와 있다.
성지와 골피의 시선이 병준에게 쏠린다.

병준 우리 집 비었는데 우리 집에서 먹자. 괜찮죠? 성지씨?
성지 저야 뭐... 상관없어요. 골피는 언제?
골피 형님네서요? 그...그래요.

S#60. 은주의 집 (저녁)

은주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골피와 성지, 병준이 문을 연다.

병준 들어와요.

성지와 골피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병준 오래 기다렸죠? 집이 좀 지저분해서.

말끔하게 정리된 은주의 집 내부,
병준이 순식간에 은주의 집(여자가 쓰는 물건 화장품등)을 다 치워버렸다.

CUT TO - 시간 경과

테이블 위에 중화요리가 가득하다.

성지와 병준, 그리고 골피가 각 테이블의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다.

골피 그런데 두 분은 언제 그렇게 친해지셨대요?

성지 (당황한 듯)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친해졌죠?

병준 뭐 같이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안 그래?

골피 그래도 좀 놀랐어요. 저는 성지씨가 형님을 좀 싫어하는 줄

성지 (골피의 말을 끊으며) 놀라긴, 뭘 놀라. 내가 모난 사람도 아니고. (급히 화제를 바꾸며) 그런데 골피야, 아까 할 얘기 있다는 건 뭐야?

골피 아, 그거요? 그게... 뭐냐면요.

골피, 병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치를 보내고,

병준은 이내 못 본 척 골피의 시선을 피한다.

골피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지 뭘데 그렇게 뜬금 들어?

성지는 별 생각 없이 탕수육을 씹으며 골피를 쳐다본다.

골피, 병준이 끝내 시선을 외면하자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할 듯 말듯 한다.

겨우 입이 열린다.

골피 성지씨.

병준 잠깐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골피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요?

병준 저기 있잖아.(성지와 골피의 눈치를 보며) 성지씨랑 나랑 말이야.

골피, 의아한 듯 병준을 바라본다.

성지, 축스러운 듯 병준을 툭툭 치며 만류한다.

병준 성지씨랑 나랑...어제부터... 사귀기로 했어.

성지 (축스러운 듯) 나중에 말해도 되는데...(골피에게) 어찌다보니까 그렇게 됐어. 놀랐지?

병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골피, 머리를 굽적거리며 웃지만 웃음이 억지스럽다.

골피 그래요? 형님이랑 성지씨랑요? 잘 됐네요, 진짜.
성지 골피 덕이 커. (병준에게) 골피랑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병준 그래요? (골피에게 미안한 듯) 고마워. 정말.
골피 아니에요. 필요. 제가 뭘 했다고. 축하해요, 성지씨.
성지 골피도 얼른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될 텐데.
골피 그러게요.
성지 그런데 골피가 할 말이라는 건 뭐야?
골피 저요? 제가 할 말이... 일단... 잠깐 화장실 좀.

골피,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S#61. 화장실 안

골피, 변기에 앉아있다.
골피, 후회가 밀려오는 듯 머리를 세게 긁적거린다.

S#62. 거실

화장실에서 골피가 나와 자리에 앉는다.
골피의 시선이 성지에게 줄 가방으로 향한다.
다시 성지를 바라본다.

성지 그래, 할 말이 뭐야?
골피 그러니까... 전...저는요...병준이 형님이랑 의형제 맺기로 했어요.
성지 정말? 둘이 의형제 맺은 거야? 잘 됐다.
골피 병준이 형님이 이름도 새로 지어주시고. 마이클이라고.
성지 마이클?
골피 네. 중화요리의 황제가 되라는 뜻으로.
성지 멋지다. 마이클? 마골피? 마이클? 마이클 골피! 굳 굳!
골피 그리고 보니까 두 분이 오늘 첫 데이트데 제가 괜히 방해한 것 같은데요.
병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이클.
성지 그래, 방해는 무슨 방해야.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저녁도 먹으면서 데이트 하는데.
골피 아니에요. 전 이만 가 볼게요.
성지 왜? 무슨 일 있어?

병준 그래, 동생, 먹던 밥은 먹고 가.
골피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버지 밥 차려 드려야 되는 걸 깜빡 했네요.

골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지와 병준도 같이 일어난다.

골피 일어나지 마세요.

골피, 황급히 집을 빠져나간다.

병준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가 볼게요.

병준이 골피의 뒤를 따라간다.

S#63. 은주의 오피스텔 밖 (밤)

골피가 통로에서 뛰어 나오고 병준이 뒤따라 뛰어나온다.

골피 왜 나오셨어요. 혼자 가면 되는데.
병준 마이클, 그러니까... 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골피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병준 아니야.(골피의 얼굴을 못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며) 놀랐지?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골피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됐죠, 뭐.
병준 그러니까 난 마이클이 오늘 일 때문에.....
골피 (웃으며) 됐어요, 형님. 괜찮아요, 전. 그만 들어가세요.

병준, 끝내 고개를 못 든다.

병준, 손으로 골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위로한다.

골피, 애써 미소 지으며 오피스텔 반대편 대로변을 향해 걸어간다.

병준은 끝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다.

골피 들어가세요, 형님. 안에 성지씨 혼자 있잖아요.
병준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인다)
골피 그리고 형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 가방 형님이 선물하는 걸로 해주세요.
병준 그런 게 어딴어? 마이클이 산 건데. 마이클이 줘야지.
골피 어차피 형님 가게에서 딴 돈으로 산건데요 뭐. 형님이 주세요.
병준 그래도 그건 마이클이 성지씨 주려고 산건데.

골피 동생이 부탁 좀 할게요.

난감해하는 병준,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골피 (웃으며) 저 진짜 창피해서 그래요.

골피, 병준과 멀어져만 간다. 골피, 병준을 향해 손을 흔들고 뒤돌아선다.
돌아선 골피, 금세 풀이 죽는다.

S#64. 슈퍼마켓 (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낸다.
계산대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내민다.

골피 얼마예요?
아줌마 1800원이요.

골피,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빠져 나간다.
골피가 나가는 순간 은주가 들어온다.

은주 아줌마! 말보르 레드 하나 주세요.

S#65. 슈퍼마켓 밖 거리 (밤)

슈퍼마켓에서 나온 골피, 한 숨을 깊게 내쉰다.
병뚜껑을 따서 병째로 한 모금 마신 후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슈퍼마켓에서 나온 후 은주가 잇따라 나온다.
은주는 골피와 반대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간다.

S#66. 은주의 집 (밤)

홀로 남은 성지, 탕수육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일어나서 원룸으로 된 방을 둘러본다.
여기 저기 서랍도 열어보고 방을 둘러보던 성지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커다란 검은 봉지가 있다.
성지, 그곳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 곳을 열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병준이 들어온다.
병준, 봉지를 열려고 하는 성지를 보고 크게 소리친다.

병준 성지씨!
성지 골피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성지, 봉지에서 손을 떼고 병준에게 간다.

S#67. 은주의 집 근처 (밤)

은주, 언덕길을 올라가다 힘이 든 모양인지 잠시 걸음을 멈춘다.
다시 언덕길을 올라간다.

S#68. 은주의 집 (밤)

성지와 병준,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
여전히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다.
성지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다 놓았다만 할 뿐 먹지는 않는다.

병준 그 동안 눈치 못 챘어요?
성지 전혀요. 나한테는 친 동생 같은 애거든요. 나 처음 약국 열었을
 때 도움도 많이 주고...
병준 모른 척 해요. 그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골피를 위해서도...
성지 알았어요.
병준 그런데 정말 몰랐어요?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나?
성지 몰래 짹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병준 솔직히 말해 봐요. 어제 나한테 한 말 거짓말이죠?
성지 무슨 말이요?
병준 내가 처음이라는 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난 거 아니에요?
성지 정말 처음이에요. 나 몰래 짹사랑한 사람은 열댓명 정도 있었
 겠죠, 뭐.
병준 뭐예요?

병준, 성지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성지, 쉽게 간지럼을 탄다.

성지 하지 마요.

병준, 성지에게 살며시 다가간다.
병준, 성지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운다.

성지는 심하게 반응하며 반항한다.
간지럼을 타던 성지가 침대 쪽으로 도망을 간다.
병준 역시 따라가서 간지럼을 태운다.
성지, 병준을 심하게 때리며 거부한다.

성지 병준씨, 그만 해요. 제발요.
병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성지 잘못 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병준, 간지럼을 멈춘다. 침대위에 있는 병준과 성지, 서로를 바라본다.
병준의 얼굴이 성지의 얼굴과 가까워진다.
갑자기 찰칵 소리가 나고 현관문이 열린다.
은주가 들어온다.

은주 뭐야? 왜 문이 열렸어?

성지와 병준, 은주를 쳐다본다.

은주 누구세요? (병준에게) 오빠, 누구야?

병준, 간절이던 성지의 곁에서 떨어진다.
병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 송글 맺혀있다.

은주 오빠, 누구냐고. (성지에게) 누구세요?
병준 인사들 나눠요. 그러니까... 이 쪽이 누구냐면...
성지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은주 네? 누구신데 제 애길 들으셨어요?
성지 병준씨, 동생 맞죠?

S#69. 거리 (밤)

가로수 길을 성지와 병준이 걷고 있다.
그들이 걷는 길가에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성지 그때 말한 동생이 여동생인줄은 몰랐어요.
병준 그러게요. 나도 깜빡 깜빡 해요. 아까 많이 놀랐죠?
성지 나보다 병준씨가 더 놀란 것 같던데요? 동생이랑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병준 개가 좀 못생겼죠?
성지 아니예요. 병준씨가 훨씬 더 못생겼어요.
병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지 진짠데.

병준, 걸음을 멈춘다.

병준 성지씨는 거짓말 같은 건 전혀 할 줄 모르나 봐요.
성지 미안해요. 기분 나빴어요?

병준 다시 성지 옆으로 가서 걷는다.

병준 아뇨, 기분 나빴다기보다 성지씨는 좀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서. 때론 선의의 거짓말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성지씨는
성지 (말을 끊으며) 못생겨도 좋아요.
병준 네?
성지 병준씨, 못생겨도 좋다고요. 그래야 딴 여자들이 좋다고 안 하죠.

병준, 해벌레 웃음을 짓는다.

병준, 걸음을 멈춘다. 성지도 이상한 듯 걸음을 멈추고 돌아본다.

병준, 성지의 손을 잡는다.

병준, 성지에게 키스할 듯 다가간다.

성지, 병준의 시선을 피하고 걸어간다.

성지 이만 들어가요. 동생 기다리는데.

병준, 성지를 뒤따라 뛰어간다.

병준 무슨 소리에요? 집 앞까지 바래다 줘야죠.
성지 됐어요. 그냥 들어가요. 동생이 나 욕하겠네.

S#70. 은주의 집 (밤)

병준이 집으로 들어온다.

은주는 테이블에 있는 남은 중국요리를 먹고 있다.

병준 야, 미리 들어올 거였으면 연락을 주던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은주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구청에 신고라도 하고 들어 오냐?
병준 왜 벌써 오냐? 너 또 룸 들어가서 뽕찌 먹었냐? 그러니까 그
 짓도 그만 때려 쳐. 니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제. 돈 내고 술
 마시는데 누가 너 같은 노계를 반기겠냐?
은주 씨발! 그 년한테 다 붙어 버린다?
병준 맛있냐? 많이 먹어라.

병준, 베란다에 가서 검은 봉지를 은주에게 던져주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은주, 봉지를 열자 자신의 속옷이며 화장품 같은 것이 죄다 들어있다.

은주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 개쌍놈의 새끼.

은주, 방구석에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본다.

은주 오빠, 이거 뭐야?

은주, 선물을 뜯는다. 명품 핸드백이 나온다.

은주 루이비통? 오 마이 갓! 딱 내 스타일인데? 오빠 이거 내꺼야?
 (병준이 대답이 없자, 혼잣말로) 그 년 주려고 산 거 아니야?

은주, 가방에 있는 가격표와 상표를 이빨로 확 씹어버린다.
거울 앞에서 가방을 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병준이 나온다.

병준 야, 그거 안 내려놔?
은주 내꺼 아니야? 이미 가격표 다 떼 버렸는데. 이를 어째?
병준 그게 얼마짜린데. 씨발 년이 진짜.

병준, 은주를 때릴 듯이 손을 쳐들자 은주는 도리어 고개를 갇다 댄다.

은주 뭐! 어찌라구. 그년한테 가서 다 붙어?

병준, 때리는 걸 포기하고 돌아선다.

S#71. 골피의 집 (동 시간)

술에 살짝 취한 골피,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널부러져 눕는다.

마사장이 허리를 쫓고 골피의 방으로 온다.

마사장 늦었다.
골피 일이 좀 있었어요.
마사장 술 마셨나?
골피 조금요.
마사장 무슨 일 있냐?
골피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마사장 약 떨어졌다.
골피 내일 지어다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참고 주무세요.
마사장 자식, 싸가지 하고는. 쉬어라.

마사장, 골피의 방에서 나간다.

S#72. 은주의 집 (동 시간)

병준과 은주, 한 침대에 누워있다.
은주가 병준의 팔베개를 하고 있다.

병준 너가 보기엔 어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은주 내가 훨 낫던데.
병준 얼굴도 괜찮고, 몸매도 뭐 그 정도면. 머리로 푹푹하고 집안 좋고
 그런데 왜 시집을 안 갔나 몰라. 여태껏 장가 안가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은주 오빠! 나도 어디 가서 안 풀려.
병준 (은주의 말을 무시하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
은주 또 뭔데?
병준 아다야, 아다.
은주 아다 좋아하네. 그걸 어떻게 아냐? 확인해 봤어?
병준 그걸 꼭 확인해봐야 하나?
은주 그런데 아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병준 내가 처음이래. (은주를 향해 고쳐 누우며) 남자 사귀는 게 내가
 처음이래.
은주 오빠, 씨발 그 말을 믿는 거야? 나이 서른에 남자를 안사귀어
 봤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남자 안사귀어 본 애는 다 아다냐.
병준 야, 개가 너같이 아무 남자랑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앤 줄 아냐?
은주 진짜 그런 애 아니야? 몸은 주는데 마음은 안주는,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병준 (은주의 입을 쥐어뜯으며) 이게 뚫린 입이라고, 남의 마누라 될 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은주 오빠, 정말 그년이랑 결혼 할 거야?

병준 왜? 그 정도면 우리 아버지도 이번엔 오케이 하시지 않을까? 병원장 딸인데 말이야.

은주 씨발, 무슨 시아버지하고 장모가 결혼 하나? 오빠 나이가 몇 살 인데... 그놈의 아버지 타령 좀 그만 해.

병준 (천장을 보고 한숨을 내뿜는다) 그나저나 엄마, 아버지는 잘 계시 나 모르겠네.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아버지.

S#73. 병준의 게임장 (다음날 낮)

왕씨와 사씨가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다.
맞은편에 흥관장이 혼자서 3대의 게임기를 돌린다.
왕씨와 사씨가 서로 무슨 이야기를 쑥덕거린다.

왕씨 내가 직접 봤다니까. 분명히 공식이겠어. 공식.

사씨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야?

왕씨 이렇게 게임기 3대 돌리고 있으면 뭐해? 공식만 알면 한 대만 잡고 있어도 쪽쪽 뽑아내는데. 상품권이 면 뽑듯이 나온다니까.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3대의 게임기를 돌리고 있던 흥관장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흥관장 조용히들 못 해? 공식은 무슨 공식이야?

왕씨 관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흥관장 보긴 뭘 봐? 원소리들 할 거면 가서 장사나 하라고.

병준이 들어온다. 병준 근엄한 표정으로 게임장 사무실 쪽으로 간다.
사람들의 표정이 병준을 따라간다.

S#74. 골피의 중국집 (동 시간)

골피가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먹고 간 빈 자장면 그릇과 단무지 그릇이 있다.
행주로 닦다가 잠시 멈추고 한 숨을 내뿜는다.
골피, 식탁 위에 놓인 남은 단무지를 씹어 먹는다.
다시 행주질을 하려 하는데 문이 열리고 성지가 들어온다.

폴피 성지씨.
성지 폴피야, 안녕?

S#75. 게임장 (동 시간)

병준이 게임장 안의 직원 탈의실로 들어간다.
탈의실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다.
병준,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의 사무실이 나온다.
사무실 안, 김군이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다.
사무실 안에는 게임장 내부를 관찰하는 CCTV와 연결된 모니터가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 게임기의 승률과 배당 등 정보가 나와 있다.
김군은 병준이 들어오자 휴대폰을 접고 바로 앉는다.

김군 사장님 오셨어요?
병준 김군아. 우리 지금 게임기당 승률이 6 대 4로 맞춰진 거 맞지?
김군 (성의 없게) 네.
병준 그래? 그거 있잖아. 8 대 2로 맞춰 볼래?
김군 (건성으로) 8 대 2요?

김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게임 승률 조작을 한다.
모니터 화면에 게임기마다 승률이 바뀐다.
동시에 옆 모니터 CCTV 모니터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병준, CCTV 모니터를 보고 당황한다.

병준 야, 인마. 어떻게 된 거야? 왜 다 터져?
김군 사장님이 승률을 높이라면서요?
병준 높이긴 왜 높여? 낮춰야지. 자식이 누구 장사 거털내려고 작정을
 했나.
김군 에이, 그럼 8 대 2가 아니죠. 2 대 8이지

김군, 다시 성의 없게 대답하고 컴퓨터로 승률을 맞춘다.

S#76. 게임장 (동 시간)

게임장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책꽂이 터지며 환호한다.
왕씨와 사씨, 흥관장의 자리를 제외한 많은 자리에서 상품권이 나온다.

왕씨 보세요. 이래도 공식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사씨 싫으면 관두세요. 우리끼리라도 물어 볼 테니까.

홍관장, 표정이 심란하다.

S#77. 골피의 중국집 (동 시간)

골피와 성지 마주 앉아있다.

성지 어제 그렇게 가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골피 맛있게 드셨어요? 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소금이 더 들어갔는지
 좀 짜게 된 거 같기도 하고.
성지 골피야, 난 골피를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골피 알아요.
성지 그래,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골피는 내 친동생 같은 사람
 이야.
골피 성지씨. 그만해요. 나 바보 아니에요.
성지 (안타깝게) 골피야.

왕씨와 사씨가 골피의 중국집 안으로 들어온다.

왕씨 골피 안에 있는가?
사씨 약사 선생님도 계셨네요?
성지 안녕하세요.
왕씨 선생님도 공식이 궁금해서 오셨구만? 역시 똑똑한 양반이라 소식
 도 빠르다니까.
사씨 설마. 선생님도 그런 데 다니실라고?
성지 네? 어디를 다녀요?
왕씨 골피, 좋은 건 혼자 알지 말고 같이 좀 알자고.
골피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거라뇨?
사씨 왜 그래? 다 듣고 왔어.
왕씨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홍관장이 들어온다.

홍관장 (버럭)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S#78. 중국집 밖 (낮)

중국집 밖, 후미진 골목에서 홍관장과 골피가 있다.

홍관장은 화가 난 듯 양 손을 허리에 두르고 이야기 하는 반면,

골피는 혼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듣는다.

홍관장 니가 한 방 크게 터지고 사람들이 전부 니 얘기하는 거 알고 있냐?

골피 예.

홍관장 그럼 게임장에서도 온통 그 니가 안다는 공식인지 뭔지 때문에 난리가 난 것도 알고 있겠구나.

골피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홍관장 공식이 뭐냐? 뭔데 그렇게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냐고.

골피 죄송해요, 관장님.

홍관장 죄송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나는 말이다, 이 마을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써 그 공식이 있는지,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

골피 다신 발 안 들여놓을게요.

홍관장 그걸로 책임을 진다고? 마을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그걸로 책임진다고 지어 지냐? 그 공식이 대체 뭐야? 공식이 뭐길래 마을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골피 (침묵)

홍관장 너 정말 말 안 할래?

골피 죄송해요. 이렇게 관장님을 걱정시켜 드릴 줄은….

홍관장 말을 하라고, 그 공식이 대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골피 네?

홍관장 공식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냐고!

S#79. 약국 (저녁)

병준과 성지가 약국에 앉아있다.

성지의 표정이 어둡다.

병준 골피는 좀 어때요?

성지 내색은 안하는데…….(한숨을 내쉬고) 원래 오늘 약국에 와야 되는 날인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병준 약국엔 왜요?

성지 골피네 부모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가거든요. 그 약이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도 아닌데, 이럴

병준 줄 알았으면 아까 갔을 때 갔다 줄걸 그랬어요.
성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있으니까 안 왔겠죠.
 아마 오늘 좀 떨어졌을 텐데…….

S#80. 골프의 집 (동 시간)

골피가 방으로 들어온다. 골피, 많이 지쳐 보인다.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고작 천 원짜리 몇 장과 만 원짜리 세장이다.
양철통을 열어본다. 두툼한 돈뭉치가 있다. 대략 200만 원정도 돼 보인다.
골피가 지갑에서 꺼낸 돈을 양철통에 넣는다.
마사장과 마부인이 골피의 방으로 들어온다.

마사장 왔냐?
골피 네.
마사장 약은 지어왔냐?
골피 오늘 바빠서 못 갔어요. 내일 지어올게요.
마부인 요즘 무슨 일 있냐?
골피 일은요, 무슨. 아무 일도 없어요.
마사장 그런데 흥관장이 하는 말은 뭔 말이나? 좀 전에 흥관장한테
 전화왔는데 갑자기 가게 월세랑 집세를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너한테 좀 전해주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하면 니가 알 거라고.
마부인 그 주성치인가 뭔가 하는 놈이 또 영화 만들었냐?
마사장 뭐야? 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그래?

골피, 벗어놓은 잠바를 다시 꺼내 입는다.

마부인 이 시간에 어디가?
콜피 계세요. 잠깐 약국 좀 다녀올게요.

S#81. 약국 밖 (밤)

약국 근처까지 온 골피, 들어가기를 망설인다.

약국 안에는 성지와 병준이 있다.

병준이 성지를 간지럼피우고, 성지는 밝게 웃고 있다.

성지가 나름대로 반향을 하지만 그것은 괴로움보단 즐거운 모습으로 보인다.

성지는 자신의 옆에 있는 바카스 병으로 병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는다.

병준, 아파서 손으로 머리를 비빈다.

성지, 놀라서 병준의 상태를 살핀다.

병준, 다시 간지럼 피운다.
골피, 이 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S#82. 무술도장 (밤)

골피가 무술 도장 안으로 들어온다.
홍관장, 술잔에 소주를 따른다.

홍관장 왔냐? 앉아라.

골피가 홍관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홍관장, 술잔에 담긴 술을 단번에 마시고 골피에게 술잔을 준다.

홍관장 너 내가 지난 20년 동안 월세 거의 안 올린 거 알고 있지?

골피 네.

홍관장 너가 가게 세 밀려도 내가 아무 말 않고 기다려준 것도 알지?

골피 네.

홍관장 그런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자식아! 내가 너한테
뽀지를 주라그러든? 수수료를 내라 그러든? 니가 아는 공식 나한
테 살짝 공유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니가 아는 거
나한테 알려주면 니 머릿속에서 공식이 빠져 나가냐? 그러는 거
아니야. 옛 말에 말이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어. 니가 그 뜻을
알아? 싸가지 없는 자식. (잔에 술을 따른다)

골피 죄송해요.

홍관장 너 그 게임장 사장이랑 좀 친하다고 그러는 거냐? 너 그 자식이
랑 몇 달이나 봤어? 한 달이나 봤냐? 난 널 20년 동안 지켜봤어.
20년이 한 달한테 밀리냐? 니가 그러고도 이 동네에 사는 화교라
고 말할 수 있어?

골피, 술잔을 바라본다.
잔에 담긴 술에 병준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준 (술잔 속에서의 모습) 절대 비밀이야. 알지?

홍관장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릴 테니까 오른 월세로 내든지 아니면
방을 빼든지 양자택일을 해.

골피 그치만 너무 갑자기 월세를 올리시면...

술잔 속에서 약국 안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병준과 성지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른다.

홍관장 죄송이고 나발이고 이젠 늦었어. 오른 월세로 내든지.

골피 술잔을 바라본다.

술잔 속에서 약국 안에서 간지럼을 태우는 병준과 성지의 다정한 모습이 떠오른다.

홍관장 아니면 방을 빼고 가게를 빼던지.

골피 (결심한 듯 술을 단 번에 들이켜 마시고) 13초 후에 27초요.

홍관장 뭐?

골피 공식이요. 13초 있다 누르고 27초 있다 누르면 돼요.

홍관장 자식이 진작 그럴 것이지. 사람을 꼭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기다려봐. 자식아. 잠깐만 나 옷 좀 챙겨 입고 올 테니까.

S#83. 게임장 (밤)

골피와 홍관장이 자리를 잡은 곳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사씨와 왕씨,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본다.

홍관장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뭘 봐? 사람들아,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게임들 해. (골피에게) 그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왕씨와 사씨, 홍관장과 골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왕씨 골피, 나한테는 왜 안 알려줘?

사씨 좋은 건 같이 좀 압시다. 네? (골피에게) 너 지금 사람 차별하냐?

홍관장 이 자식들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야? 우린 그냥 게임하러 온
거야. 가서 게임 들 해.

사씨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요. 게임 좀.

홍관장 이 자식들이 미쳤나? 썩 안 꺼져? 부정 타게 왜 이래?

왕씨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 홍관장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골피,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홍관장, 왕씨와 사씨가 물러난 모습을 보고,

홍관장 신경 쓰지 마.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골피 처음에 13초 그 다음에 27초요.

골피가 버튼을 누르자 멀치 그림 세 개가 맞는다.

상품권 3장이 나온다.

홍관장이 해본다.

그림 세 개가 다 틀리다. 멸치 콩치 고등어 그림이 차례로 뜬다.

홍관장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홍관장, 다시 버튼을 누르지만 그림 세 개가 다 틀리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버튼을 누르지만 또 실패해버린다.

홍관장 그러지 말고 니가 좀 해 봐. 터지기만 하면 내가 니 뒤통은 알아서
 챙겨 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S#84. 성지의 집 앞 (동 시간)

병준과 성지가 길을 걷다가 성지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성지 들어갈게요.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병준 성지씨, 잠깐만요.

병준, 성지를 뺏히 바라본다.

병준 성지에게 서서히 다가간다.

병준과 성지의 얼굴 사이가 좁혀진다.

성지 (고개를 돌린다) 미안해요. 아직은…….

병준, 성지의 얼굴을 다시 돌린다.

병준 (웃으며) 성지씨, 괜찮아요.

성지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요 병준씨.

병준 (성지의 입을 막으며) 나 믿어요.

병준, 다시 성지에게 다가간다.

성지, 눈을 감는다.

이제 정말 키스할 듯 가까워졌다.

성지의 집 대문이 열리고 명진이 나온다.

명진 성지야, 뭐하니?

성지 엄마.

명진 누구니?
병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성지씨랑 교제하는 윤병준이라고 합니다.
명진 (성지에게 못마땅한 듯) 뭐하는 사람이야?
병준 네, 약국 근처에서 게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게임장?

명진, 병준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굉장히 못마땅한 눈빛이다.

명진 들어가자. 늦었다.

병준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명진이 병준을 밀치고 문을 닫는다.

성지 들어가요, 병준씨. 미안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쿵하고 들린다. 병준, 닫힌 문들 멍하니 쳐다본다.

S#85. 게임장 (동 시간)

게임기 속의 화면, 이미 두개의 가오리 그림은 맞았다.
골피, 버튼을 누른다. 세 번째 그림이 앞의 두개의 그림과 틀리다.
홍관장이 골피의 뒤통수를 때린다.

홍관장 공식을 대입하란 말이야, 공식을. 내가 지금 너 스트레스 풀라고 데려온 줄 알아?
골피 이상하게 공식이 안 먹히는데요?
홍관장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 니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냐?
골피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
홍관장 (뒤통수를 때리며)다시 해봐. 자식아.

골피, 게임기에 돈을 넣는다.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 그림까지는 일치한다.

홍관장 그렇지. 그렇지.

골피 버튼을 누른다. 세 번째 그림, 멸치가 뜬다.

홍관장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재밌냐? 재밌어? 공짜로 게임하니까

재밌지? 스트레스가 딱딱 풀리지?
 골피 (침묵)
 홍관장 꺼져, 자식아. 이 자식이 평소 아들같이 생각해줬더니…….
 골피 다시 해 볼게요.
 홍관장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꺼져 자식아.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골피, 자리에서 일어난다.

홍관장 자식아, 가서 방 뺄 준비나 해. 싸가지 없는 자식. 에라이, 재수 없는 자식. 어른 데리고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S#86. 골피의 방 (밤)

골피가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눕는다.
 골피의 눈에 돈을 모아둔 양철통이 들어온다.
 골피, 양철통을 열어본다. 돈뭉치가 들어있다.
 한참을 망설이던 골피, 양철통에서 돈을 꺼낸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그 소리에 놀란 골피는 돈을 주머니 속에 넣는다.
 마사장이 들어온다.

마사장 왔냐? 약이나 줘라.
 골피 (놀란 듯) 네? 약이요? 아, 지어 와야죠.
 마사장 약 지으러 간 놈이 세시간만에 빈손으로 오는 건 뭐냐?

S#87. 성지의 집 거실 (동 시간)

현관문이 쾅하고 닫히고 명진이 들어오고 뒤이어 성지가 들어온다.
 명진, 들어오자마자 찬장에서 양주부터 꺼내 잔에 따라 벌컥벌컥 마신다.
 성지는 그런 명진의 태도에 무척 지친 모습이다.

명진 (어이가 없는 듯) 게임장? 웃기지도 않네, 진짜.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게임장하는 남자야? 그런 남자 만나려고 나한테 남자 없다고 거짓말 한 거야?
 성지 게임장이 어때서 그래요.
 명진 어때서 그래? 너 미쳤구나? (다시 술을 마신다) 생긴 건 또 그게 뭐니? 너 남자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게 가당키나 한 얼굴이야?
 성지 엄마, 그 사람 착하고 순수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명진 착하고 순수하다고? 너도 봤잖아. 싫다는데도 강제로 너한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성지 (버럭) 엄마! 그 애긴 그만 좀 해.

명진 (성지의 팔을 잡으며) 성지야, 엄마 너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마지막 꿈이야. 그렇게만 되면 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런 남자 말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성지 엄마 눈엔 정말 제대로 된 남자가 있긴 있는거야?

명진 뭐?

성지 그 남자 게임장해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못생겨서 안 되는 거야? 아니잖아. 엄마 그냥... 내가 남자 만나는 게 싫은 거잖아.

명진 성지야. 그런 말이 어딴어? 나도 너가 좋은 남자라면 충분히...

성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엄마 내가 남자 만나는 거 무조건 싫어했어. 남자한테 편지라도 오면 나 몰래 불태워 버렸고, 집으로 전화라도 오면 그런 사람 안 산다고 끊어 버리고...내가 몰랐던 것 같아?

명진 성지야, 난 너가 상처 때문에 조심히 만나길 바랬던 것 뿐이야.

성지 엄마, 제발 좀 솔직해져요. 엄마가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그 남자가 엄마한테 상처주고 떠났다고 해서...뱃속에 있는 애까지 지워버리게 해서 그래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잖아. 엄마가 그러는 게 날 얼마나 지치게 하는 줄 알아?

명진 (버럭) 그만해. 이 창녀 같은 년아!

명진, 들고 있는 양주병을 벽에 세게 던진다. 유리병이 산산 조각이 난다.

명진, 몸을 부르르 떤다.

성지,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명진, 뒤늦게 성지를 따라 간다.

명진, 성지의 방문을 열려고 하지만 굳게 잠겨있다.

명진 방문을 두드린다.

명진 성지야, 미안해. 문 좀 열어봐. 성지야! 성지야!

S#88. 성지의 방 (동 시간)

성지, 방문에 기대 주저앉는다.

명진이 계속해서 성지의 방 문을 두드린다.

명진 성지야,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제발 문 열어 봐.

성지, 귀를 막는다

S#89. 성지의 과거 몽타쥬

* 병원 병실

환자복을 입고 있는 어린 성지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명진, 병상 침대에 앉아서 성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영안실안

형사1, 하얀 천을 내리자 하얗게 창백해진 얼짱 거지 성지의 친母的 얼굴이 나온다.

어린 성지, 친 母의 얼굴 가까이 손을 가져가지만 이내 만지지 못한다.

형사1, 다시 하얀 천을 덮는다.

*영안실 밖

병원 복도에 성지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형사1와 명진이 이야기하고 있고 한참 떨어진 곳에 성지가 쪼그려 앉아있다.

성지가 고개를 돌리자 명진이 형사1에게 화내는 모습이 보인다.

형사1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있다. 때문에 명진은 더 크게 화를 낸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성지의 노랫소리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명진이 성지 곁으로 가서 손을 잡고 걸어간다.

명진이 물러나자 형사2가 형사1에게 다가간다.

형사2 뭣 때문에 그래?

형사1 왜 엇그제 여자 노숙자 한 명 죽어서 왔잖아. 그걸 무슨 수로
 해결 하냐고. 증거가 있어야 해결을 하지.

형사2 (웃으며)똥 밟았네. 적당히 시간 끌다 마무리 해. 안 그래도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성지, 가다가 뒤돌아본다.

명진이 성지의 손을 잡는다.

성지가 고개를 들어 명진을 올려다본다.

명진 가자.

성지, 청의 손에 이끌려 다시 걸어간다.

*동사무소

어린 성지, 명진과 함께 있다. 명진이 동사무소 男직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다.

직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분은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요.

S#90. 성지의 방

성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린다.
명진, 계속해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세기가 점차 약해진다.

S#91. 게임장 (동 시간)

골피, 흥관장과 좀 떨어진 뒷자리에 앉는다.
골피가 자리에 앉자 왕씨와 사씨가 골피에게 다가간다.

왕씨 골피, 우리도 좀 알려줘.
사씨 그래, 관장님만 알려주지 말고.

골피, 뒤돌아 흥관장을 본다.
흥관장, 게임기 속의 그림 세 개가 다 틀리다.

흥관장 왜 이렇게 안 돼?

흥관장, 게임기 버튼을 쿵쿵 누르며 내리친다.

골피 저도 몰라요.
왕씨 진짜 너무 하네.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골피 그냥 가세요. 저도 진짜 몰라요.
왕씨 (옆에 있는 의자를 차버리며) 치사해서 이거 원,
사씨 그냥 우리끼리 하자. 돈 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어디.

왕씨와 사씨,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흥관장, 게임기 버튼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 친다.
역시 그림 세 개가 다 틀리다.

흥관장 재수 없는 새끼. 야! 너 저 쪽 가서 떨어져 앉아.

골피, 자리를 피해 그 옆 떨어진 자리로 옮긴다.

골피, 버튼을 누른다. 첫 번째 화면에 고래 그림이 뜬다.

인서트 - 사무실 안

김군, 흐트러진 자세로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김양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김군, 형식적으로 한번 김양을 보더니 다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김양이 CCTV모니터를 본다.

김양 야, 재 사장님 손님 아니야?

김군 그래?

김양 아까부터 죽치고 있던데 한번 터뜨려 줘. 괜히 사장님 오고 나서
일 안하고 놀고 있다고 욕먹지 말고.

김군 잔소리는...알았어.

김군, 성의 없이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더니 휴대폰 게임에 다시 열중한다.

게임장 안

골피의 그림 세 개가 맞는다.

잭팟을 알리는 팡파레가 들린다.

골피의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쏟아져 나온다.

왕씨가 골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왕씨 뭐야? 고래 터졌어?

골피, 당황하는 모습이다.

홍관장, 골피를 무차별적으로 때린다.

홍관장 이 새끼야, 지금 누구 놀리냐? 놀려?

골피 (쏟아지는 상품권을 홍관장에게 내민다) 이거 관장님 거예요.

골피를 때리던 홍관장, 잠시 멈칫한다.

주위의 시선이 다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골피를 때린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다.

홍관장 누가 너한테 뺏지 달래? 이 개새끼가.

S#92. 차이나 타운 거리 (며칠 뒤 아침)

왕씨의 가게 앞,
왕씨와 왕씨 부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가게 앞을 쓰는 왕씨부인, 물건을 내놓는 왕씨.

왕씨 홍관장, 그날 이후로 아주 게임장에서 살드만 살아. 벌써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뛰하는 것인지 몰라.
왕씨 부인 당신이 좀 말려 봐. 이러다 내년에 가게세 오르는 거 아니야?
왕씨 완전 미쳐 사는 양반을 내가 그걸 무슨 수로 말려? 그리고 지금
 은 말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돈 다 떨어지면 그만 두겠지.
왕씨부인 많이 잃었대?
왕씨 무지하게 잃었을 걸. 혼자 게임기를 다섯 대 잡고 돌리더만.
왕씨부인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다녀. 알았지? 가기만 해봐.
왕씨 거기서 내 얘기는 왜 나와?

골피가 지나가다 왕씨의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멈춘다.

골피 안녕하세요.
왕씨 부인 (떨떠름하듯) 어, 그래. 이제 출근 하나?
골피 네. (왕씨를 보고) 아저씨도 안녕하셨죠?
왕씨 잘도 안녕하시겠다, 씨발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꺼져.

왕씨, 거리에 가래침을 뱉고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왕씨 부인도 따라 들어간다.

S#93. 게임장 (낮)

홍관장의 곁에 남자 직원 여러 명이 달라붙어 있다.
병준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병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어떻게 장사합니까.
홍관장 윤사장. 내가 여기서 잃은 돈이 얼마데 그냥 가?

병준, 카운터에서 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가지고 홍관장에게 쥐어준다.

병준 그냥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직원들, 홍관장의 양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데려간다.

홍관장 내가 연말에는 돈이 나온다니까 그러네.
병준 그럼 연말에 오세요.

직원들 다시 홍관장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

홍관장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여기에 때려 박은 돈이 얼마데.
병준 솔직히 저도 직원들 월급 주고 손님들 뺏지 챙겨주고 이거저거
 빼면 남는 거 없습니다.
홍관장 (직원들을 뿌리치며)봐 봐. 봐 보라니까. (병준이 준 돈을 꺼내
 며) 이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 봐 보라니까.
병준 (직원들에게) 모셔다 드려.
홍관장 윤사장, 내가 요 몇 주 사이에 잃은 돈이 얼마데 그냥 가나?

홍관장,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입구까지 끌려간다.

직원 한 명이 출입구 문을 연다.

홍관장, 쫓겨나기 직전 강하게 뿌리친다.

홍관장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병준, 무척 짜증스러운 표정이다.

홍관장 내가 담보 걸게. 내가 각서 쓰고 담보 걸게. 그럼 되는 거지?
병준 담보요?
홍관장 그래. 담보 걸고 하자고. 요 주변이 다 내 건물인 거 알지? 그거
 걸고 하면 되잖아.
병준 건물을 담보로 거신다고요?
홍관장 그래. 건물을 담보로 걸고 하자고. (직원들에게) 니들이 증인 서.
 그럼 되잖아.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씨발,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게임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홍관장과 병준을 바라보고 있다.

병준, 잠시 아무 말 않고 생각한다.

S#94. 홍관장의 무술도장 (낮)

홍관장, 자신이 쓴 각서에 도장을 찍는다.

병준이 그 각서와 건물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는다.

병준 (사이) 원래 안 되는 거 아시죠?
홍관장 알지, 그럼. 이 사람아. 내가 딱 본전만 찾고 그만 할게.
병준 딱 본전 찾을 때 까지만 봐 드립니다.
홍관장 알았다니까 그러네.
병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로 향하는 찰라, 홍관장이 그를 부른다.

홍관장 (사이) 윤사장, 그럼 말이야, 기왕 내가 담보까지 건 마당에 우리 판돈을 좀 키울까?

S#95. 홍관장의 무술 도장 밖 거리 (낮)

홍관장의 무술 도장 건물에서 빠져나온 병준,
주머니에서 계약서와 각서를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무술도장 건물을 한참동안 바라본다.
병준, 돌아서서 다시 앞으로 걸어간다.

S#96. 성지의 약국 (밤)

성지와 병준이 약국 방에 앉아 있다.

성지 미안해요. 병준씨, 어제 속상했죠?
병준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나 다 이해해요.
성지 고마워요.
병준 언젠가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나 믿어요.

병준, 성지의 손을 잡는다.

S#97. 골피의 집 마사장의 방 (동 시간)

골피와 마사장, 그리고 마부인이 앉아있다.

마부인 널 처음 만났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네.
마사장 그때 우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니 엄마가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이미 포기하고 있었지.
마부인 돈 벌러 한국에 와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널 얻었기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

마사장 그래.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니 인생은 너가 책임지어야겠지.
 마부인 강요하지는 않을게. 너도 니 생각대로 해.
 꼴피 그래서 두 분은 중국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 다 하신 거죠?
 마사장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마부인 니가 말은 안하지만 우리도 바보는 아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도 있고.
 마사장 또 우리 몸도 이래 놓으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마부인 남은여생은 고향에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꼴피 갑자기 그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도 생각할 시간은 주셨어
 야죠.
 마부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만 중국에 가는 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비록 너가 국적은 없지만 중국은 워낙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적이 없어도 불편할 게 없을 거야.
 꼴피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
 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사장 그런 거라면 걱정 할 거 없다. 이미 다 해결해 뒀으니까.

마사장,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낸다.

종이 쪼가리에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편, 선장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마사장 몸은 좀 힘들긴 해도 요즘 배가 옛날 같지 않아서 멀미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

S#98. 은주의 집 (저녁)

은주는 발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다.

병준은 침대에 누워있다.

은주 그래서 그 아저씨는 지금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가고 게임장에서
 죽치고 있는 거야?
 병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가리더라. 하긴, 하루 웬 종일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데 안 미치면 그게 이상한거지.
 은주 오빠한테는 좋은 일이잖아. 그래도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는데.
 병준 옛날 내 생각도 나고. 솔직히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은주 지금 후회하는 거야? 안 어울리게 왜 그래?
 병준 씨발, 나야 그래도 믿는 집구석이나 있었지. 그 아저씨 믿는 구석

도 없잖아.
은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게임했냐?

은주, 매니큐어 칠하던 것을 마치고 옷장에 가서 옷을 꺼내 입는다.

병준 너! 내가 병원에서 알아보라는 건 알아보았어?
은주 허리수술? 그거 생각보다 줄라 비싸던데. 웬만하면 하지 말래.
병준 돈 생각은 하지 말라니까.
은주 돈 때문이 아니라 그거 잘못하면 허리 더 망가질 수도 있대.
 특히 나이든 사람은.
병준 그러니까 잘 하는데 가서 알아보랬잖아.
은주 잘하는 데 갔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안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 짱깨새끼한테 돈이라도 빌려 썼냐.
병준 내 동생이라니까.
은주 지 친동생도 그렇게 안 챙기면서 동생은 무슨.

은주, 병준의 옆에 눕는다.

병준, 은주의 말이 짜증스러운 듯 벽을 향해 돌아눕는다.

은주, 뒤돌아 누운 병준을 끌어안는다.

은주 힘들면 그냥 집에 들어가. 나머지는 오빠 동생이 알아서 해 주겠
 지. 오빠도 할 만큼은 했잖아.
병준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
은주 끝나긴, 이제 시작이야. 이제 겨우 한 명 쯤라고.
병준 (한숨을 내쉬다) 이제 겨우 한 명이라고.... 힘들다 은주야.
은주 힘들면 나한테 기대. 오빠.
병준 정말, 나, 이 프로젝트 끝나는 대로 결혼할까 생각중이야.
은주 (병준을 껴안으며) 진짜? 고마워, 오빠.
병준 (은주를 밀쳐내고) 너 말고 성지씨랑 말이야.

S#99. 게임장 (늦은 밤)

왕씨와 게임장 직원들이 흥관장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흥관장은 인간 애를 쓰며 그들을 뿌리친다.

왕씨 그만 하세요. 사람이 잠은 자면서 살아야죠.
흥관장 놔 봐. 자식아. 이제 막 따기 시작했는데.
김양 아저씨,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세요.

왕씨 관장님, 제발요. 며칠을 여기 계셨던 거예요? 시발 냄새나 죽졌네.

홍관장, 직원들과 왕씨에게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난다.

홍관장 여기 내 자리야. 나 잠깐 눈 붙이고 올 테니까 아무도 못 앉게 해.

김양 네. 아무도 못 앉게 할게요. 걱정 말고 제발 좀 들어가세요.

홍관장 씨발, 나 왔는데 누가 여기 앉아있다 그럼 니들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김양 알았어요.

홍관장, 나가려다 발길을 돌린다.

왕씨 또 왜요?

홍관장,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지갑을 펼치자 천 원짜리 몇 장과 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다. 홍관장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김양에게 건넨다.

홍관장 아무리 그래도 뽏지는 쥐야지. 받아.

김양 (싫은 표정으로) 됐어요. 아저씨 목욕 값이나 하세요.

홍관장 (일부러 쥐어주며)부탁 좀 할게.

홍관장 나가려는데 카운터에 앉은 김군이 계산서를 내민다.

김군 관장님, 사인이요.

김군이 홍관장에게 펜과 계산서를 건네준다.

계산서에 어마어마한 돈이 청구돼 있다.

S#100. 게임장 앞 (밤)

차이나타운 앞의 밤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산하다.

게임장 문이 열리고 홍관장이 나온다.

홍관장, 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깊게 내쉰다.

길을 걷다가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붕 뜬 머리, 때가 잔뜩 낀 얼굴, 얼룩 진 옷.

홍관장, 자신의 험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긴다.

홍관장, 아무도 없는 길을 홀로 걸어간다.

거리에 홍관장의 걸음소리가 울려 또각또각 울려 퍼진다.

S#101. 골피의 중국집 (낮)

베갯돌에 간단한 찜뽕 국물을 사이에 두고 병준과 골피가 마주 앉았다.

병준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골피 네, 그냥 뒀. 그렇죠.

병준, 약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병준 성지씨가 전해 주래. 부모님 약인가보더라. 성지씨가 마이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골피 (약봉투를 받으며) 이거 약 값을 드려야 되는데.

병준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야, 부모님이나 잘 챙겨드려.

골피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병준, 술잔에 담겨 있는 술을 단 번에 마신다.

병준 마이클, 나 청혼할까 해. 성지씨한테.

골피 그래요? 축하해요. 잘 됐네요, 정말 (머뭇거리며) 그럼 결혼은
언제쯤….

병준 글쎄, 성지씨가 청혼을 받아드려야겠지만 내 나이도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야겠지.

골피 형님 결혼식을 볼 수 있었으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결혼식도 못보고 가네요.

병준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 가?

골피 여기서 곧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병준 떠난다니. 어디로?

골피 중국으로요.

병준 갑자기 왜? 중국에 가 본적도 없다며?

골피 부모님 때문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병준 그래서 마이클도 가는 거야?

골피 저만 여기 있어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셔야죠.

병준 언제 가는데?

골피 여기 정리되는 대로 가려고요. 사실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서
이번 주 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빨리 오라고
난리구요. 저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부터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S#102. 호텔 레스토랑 (저녁)

고급 레스토랑,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병준과 성지 앞에는 고급 요리가 있다.

성지는 활기가 넘치는 반면 병준, 먹는 둥 마는 둥이다.

성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혹시 병준씨 생일? 무슨 기념일인가?

병준 (맥빠진 듯 웃는다) 아니에요.

성지 그런데 왜 갑자기 레스토랑이래? 여기 병준씨가 나한테 사귀자고
처음 말한 데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병준 성지씨.

성지 네?

병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성지가 병준을 부드럽게 웃으며 바라본다.

성지 왜요?

병준 우리 결혼할래요?

S#103. 게임장 (동 시간)

게임기 속 그림, 세 개의 그림이 다 틀리다.

혼자 5개의 게임기를 돌리던 홍관장, 이제 하나의 게임기만 돌린다.

홍관장의 옆 게임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

버튼을 누르는 홍관장, 그냥 대충대충 버튼을 누른다.

또 틀리다. 반면 홍관장의 옆 사람들은 그림 세 개가 다 맞는다.

홍관장, 게임기 버튼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친다.

홍관장, 자리에서 일어난다. 의자로 화면을 내리친다.

게임기 화면이 깨진다. 홍관장, 의자로 수차례 게임기를 내리친다.

S#104. 호텔 방 (동 시간)

조명등 하나 켜진 호텔방안, 병준과 성지가 침대위에 앉아있다.

병준의 손이 성지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병준이 성지를 뜨겁게 바라본다.

성지, 고개를 돌린다.

성지 병준씨, 잠깐만요.

성지, 병준으로부터 고개를 돌린다.

병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지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는다.

성지 미안해요, 병준씨.

병준 정 싫으면 안 해도 되요. 나 이해해요. 처음이라 무서운 거 알아요.

성지 싫은 게 아니라.

병준이 성지의 옷을 벗기려 한다.

성지가 순순히 응하려다 병준의 손을 붙잡는다.

성지 나 병준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병준, 성지를 바라본다.

성지 나 처음 아니에요.

S#105. 게임장 (동 시간)

게임장 안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도망쳐 나온다.

게임장 안의 직원들이 흥관장을 말리러 간다.

흥관장, 직원 한명을 잡고 게임기 위로 던져 버린다.

게임기위에선 불꽃이 튀어 오른다.

직원들 여럿이 한꺼번에 달려가지만 흥관장은 그들을 차례차례 무술로 물리친다.

S#106. 호텔방 (동 시간)

옷걸이에 걸린 병준의 윗도리 주머니에선 계속 진동이 울리고 있다.

침대에서 말하고 있는 성지, 병준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다.

성지 그때 한 쪽 가슴의 유두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날 수술해준
 의사선생님이 지금 우리 엄마예요.

병준, 성지의 말을 듣다가 넋이 나간 듯하다.

눈에는 초점이 없고 입을 벌여졌다.

성지, 이야기하다 병준을 바라본다.

성지 병준씨?
병준 네? 네. 듣고 있어요.
성지 사실 우리 엄마가 병준씨 싫어하는 것도 그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한테 갖는 막연한 거부감 같은 거예요.
병준 그러니까 남자라서 싫다고요?
성지 네. 그렇지만요 병준씨, 나 믿어요. 우리 엄마도 병준씨의 순수한
 모습 보면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성지, 자신의 옷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씩 끄른다.
병준,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성지의 손을 잡는다.

성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병준 (혼잣말로)정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성지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 둘씩 풀린다.
병준이 성지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다.
병준의 시선이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옷으로 향한다.
주머니에서 계속 진동소리가 들린다.

병준 (안도의 목소리로) 성지씨, 잠깐만요.

병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에 있는 핸드폰을 꺼낸다.

인서트- 게임장

게임장 안에서 밖으로 김군이 던져져서 나온다.

김양 사장님,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으세요! (사이)
 흥관장이 게임장 지금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어요.

호텔방 안

병준 뭐?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나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인서트- 게임장 앞

김양 경찰들도 맞고 있으니까 그러죠!

제복을 입은 경찰들도 게임장 밖으로 던져져서 나온다.

S#107. 파출소(밤)

피투성이가 된 직원들이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다.
반대로 멀정한 홍관장은 의자에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다.
병준이 들어온다.

직원들 사장님!
파출서장 댁이 그 게임장 사장이슈?

홍관장이 뒤를 돌아 병준의 얼굴을 본다.
다시 앞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다.

병준 홍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CUT TO

직원들은 남아있지 않다.
병준, 홍관장의 옆에 앉아서 홍관장에게 따지고 있다.
홍관장은 병준의 시선을 피한다.
책상 앞쪽에 앉은 파출소장이 이 모습을 지켜본다.

병준 정말 너무하시네요. (주머니에서 계약서와 각서를 꺼낸다) 보이
 시죠? 이거 제가 하자고 한 겁니까?

홍관장 (고개를 피한다)

병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만 하고 돌아가시라고요. 돈까지
 드리면서 그만 하시고 가라고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관장 (침묵)

병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보고 어찌라는 겁니까? 네?

경찰 아저씨, 잘못했다고 하시고 합의하세요. 보니까 화교신데 법적으
 로 아주 불리해요. 콩밥은 콩밥대로 먹고 강제출국 당해요. 연세
 도 많으신 양반이. 어찌려고……. (병준에게) 그냥 적당히 합의
 보시죠.

병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금 돈이 문제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데.

경찰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참 나.

홍관장 (침묵)

병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죠.
경찰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어쩔 수 없죠. 관장님, 일어나시죠.

홍관장, 나가려는 병준의 손을 잡는다.

홍관장 저기 윤사장.

병준, 홍관장을 멀리하는 눈으로 내려다본다.
병준이 홍관장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더 세게 잡는다.

홍관장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S#108. 성지의 집 거실 (그 시간 밤)

명진이 거실 쇼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성지가 들어온다.
명진, 성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다.
성지가 쇼파에 앉는다.

성지 엄마.
명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다)
성지 엄마. 나 오늘 청혼 받았어요.
명진 (텔레비전을 보며 과장되게 큰 소리로 웃는다)
성지 엄마, 나 오늘 청혼 받았다고요.
명진 (침묵)
성지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 엄마 생각처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명진 (침묵)
성지 엄마가 일단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인지도 한 번 봤으면 해요. 그래도 싫으면...
명진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다)
성지 엄마가 그래도 싫다면, 그땐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명진, 텔레비전을 보다가 시선을 성지에게로 돌린다.

명진 약속할 수 있어?

S#109. 골짜기의 집 마사장의 방 (동 시간)

마사장과 마부인이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골피가 들어오자 마부인과 마사장, 누워 있다가 일어나 앉는다.
골피도 방바닥에 앉는다.

마사장 왔냐?
마부인 힘들지?

골피,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낸다.

골피 약 지어왔어요. 드세요.
마사장 웬일이냐? 요새 통 안 지어오더니.
마부인 아무튼 고맙다.

마부인, 약 봉지에서 약을 꺼낸다.
마부인,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마사장에게 건네준다.

골피 생각해봤는데요, (머뭇거리다) 저도 중국으로 갈게요.
마사장 (화색이 돌며) 그래?
마부인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S#110. 은주의 집 (밤)

은주가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고치고 있다.
양복 외투를 어깨에 걸치고 들어오는 병준, 많이 지쳐 보인다.
은주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거울을 통해 병준을 본다.

은주 꼴이 왜 그래? 다 죽어가네.
병준 은주야, 나 좀 안아주면 줄래?

병준, 은주를 뒤에서 껴안는다.

은주 무슨 일인데? 봐, 나 일 나가야 돼. 진숙이 안 나왔다고 땀뻘하래.
병준 오늘 하루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은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병준 너랑 달라.
은주 갑자기 뭐 소리래? 밀도 끝도 없이 나랑 다르다니? 그년이 결혼
 못 해주겠대?

병준 (울먹이며) 젓꼭지 하나가 없어!

S#111. 성지의 집 거실 (동 시간)

성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한 참 후에 병준이 받는다.

성지 병준씨. 어디예요? 일은 어떻게 됐어요? (사이) 그래요? 다행이
네. 어디 다친 거 아니죠? 병준씨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래
요? 아까 봤던 호텔에서.(사이)그럼 거기서 봐요. 사랑해요.

성지, 전화를 끊는다. 성지 옆에 명진이 앉아 있다.

성지 고마워요. 엄마.

S#112. 은주의 집 (밤 시간)

은주와 병준이 침대에 반라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다.

병준 그래요. 내일 봐요, 성지씨.

병준, 전화를 끊는다.
병준이 은주의 젓꼭지를 만진다.

은주 그만 좀 만져라. 젓꼭지 통통 볼겠다.
병준 너무 좋다. 젓꼭지.
은주 아파, 그만 만지라니까.
병준 어떡하지?
은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병원장 딸도 아니라며.

병준, 은주 젓꼭지를 만지던 손을 치운다.
은주, 병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젓꼭지로 가져간다.

은주 회장님 아시기 전에 정리해야지.

S#113. 무술도장 (아침)

많은 화교들이 모여 있다.

사람들은 중국어로 웅성거린다.
골피는 혼자 동떨어져 앉아있다.

왕씨부인 (중국어로) 흥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왕씨 (중국어로) 몰라. 파출소에서 풀려난 거 보니까 합의는 한 모양이네.
사씨 (중국어로) 가게를 다 때려 부셨다면서?
왕씨 (중국어로) 그랬대. 지금 게임장은 아예 문을 닫았드만.
왕씨부인 (중국어로)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씨 (중국어로) 뭘 어떻게 돼? 그냥 똑같이 장사하면 되는 거지.
왕씨 (눈짓으로 골피를 가리키며) 그런데 저 자식은 여기 왜 있대?
왕씨부인 (중국어로) 그만해. 지도 속이 편하겠어?
사씨 (중국어로) 들리는 얘기가 이제 중국으로 떠난다고 그러던데?
왕씨 (중국어로) 도망가는 구만, 하긴 그러고도 여기서 살면 지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왕씨부인 (중국어로) 혹시 알아듣는 거 아니야?
왕씨 (중국어로) 들으라지, 뭘. 내가 뭘 지깃 놈 무서워할까봐, 참나.

골피, 무척 불편해 보인다.
도장 문이 열리고 병준이 도장 안으로 들어온다.
사람들, 웅성거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병준 안녕하세요. 다들 오셨나 모르겠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S#114. 호텔 카페 (동 시간)

성지와 명진이 앉아있다.
성지, 손목시계를 본다. 성지는 초조한 모습이다.
반면 명진은 여유있게 창 밖을 바라본다.
카페 입구에서 선글라스를 낀 은주가 걸어온다.
입구를 바라보던 성지가 은주를 본다.

성지 은주씨?

은주, 성지와 명진이 있는 테이블까지 당당하게 걸어와 선글라스를 벗는다.

은주 오랜만이에요.
성지 은주씨가 여기는 왜? 병준씨는요?

은주 놀랐죠? 오빠는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와요.
명진 누구니?
성지 엄마, 병준씨 동생이야.
은주 안녕하세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병준씨 동생이 아니라, 병준씨랑
 동거 하고 있어요.

S#115. 무술도장

병준이 건물 계약서, 흥관장이 쓴 각서를 들고 서 있다.
화교들은 앉아서 병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병준 여기 각서랑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관장님이 저랑 한 계약
 입니다. 사실 직원들 병원비랑 게임장 기물파손까지 다 하면
 제가 손한테 그래도 사람으로서 또 흥관장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
 로써 (들고 있는 계약서를 흔들며) 여러분의 건물을 양도받는 조건
 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왕씨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윤사장, 그 양반이 평생을 이 동네
 랑 함께 했는데.
사씨 그래. 윤사장,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흥관장님이 이 동네를 만
 들다시피 했다고. 동네 구석구석 그 양반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는데 그건 좀 너무하네.
병준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원 세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게 다 때려 부셔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 (들고 있는 계약서를 흔들며) 그럼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병준이 들고 있는 계약서로 향하고 있다.

병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저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다들 재계약
 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하고 싶은 분만 하세요. 이 참
 에 저도 새로운 조건으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만 본다.

사씨 (귓속말로)한마디로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이
 말이구만.
왕씨부인 (큰 소리로)참 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맘대로 해. 비단 장수는 왕서방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도 판 데 가서 장사하면 된다 이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왕씨 부인에게 집중된다.

병준도 왕씨 부인을 쳐다본다.

왕씨, 부인의 갑작스런 발언에 놀라 부인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왕씨 이런 망할 놈의 여편네가 있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윤사장,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놈의 애편네가 원래 좀 주책이야.

사씨 저기 윤사장, 그런데 말이야. 재계약 할 때 조건은 흥관장님하고
할 때랑 똑같은 거야?

병준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생각 좀 해 보고, 따질건
따져봐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순간의 정적이 흐른다. 사람들, 서로 눈치만 살핀다.

사씨 흥관장이 심하긴 심했어.

왕씨 하긴, 우리가 좀 말렸어? 완전 미쳐 사는 걸 무슨 수로 말리냐고.

사람들, 또 한 번 웅성거린다.

S#116. 호텔 커피숍 (동 시간)

성지와 명진의 맞은편에 은주가 앉아있다.

은주 애초부터 성지씨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데리고 있을 때
쪽팔리지 않을 여자를 찾고 있던 거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서요. 애기 들었어요. 성지씨 한쪽 가슴이 어떤지….

성지 알겠으니까 그만해요.

은주 처음부터가 다 쏘였어요. 여기 내려온 것도, 게임장 차린 것도,
성지씨를 만난 것도. 그냥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차라리 속 편할 거예요.

성지 그만 하라고요.

은주 기분 나쁘겠죠. 나 그 기분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
예요.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쟁반에 커피를 들고 와서 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명진, 그 커피를 바로 은주의 얼굴에 뿌린다.

은주, 깜짝 놀라 일어난다.

은주 앓 뜨거. 씨발 진짜.

명진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을 향했다.

은주, 휴지를 잔뜩 뽑고 자신의 핸드백을 든다.

은주 남자 처음 사귀다면서요? 정신 차려요, 아가씨. 젓꼭지 없으면
 남자 만나기 힘들어.

은주, 자리를 떠난다.

명진 그러게 내가 뭐랬어.

성지 그만해요, 엄마.

성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명진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남잔 다 똑같아.

S#117. 무술 도장 (저녁)

사람들이 빠져나간 무술도장 안에 병준과 골피 둘이 남아있다.

골피, 병준,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

병준, 도장 찍은 문서를 윗도리 안주머니에 넣는다.

골피 웬만한 건 다 정리 했는데 혹시 납부 안 된 돈이 있을지 모르겠
 네요.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병준 됐어. 신경 쓰지 마. (사이) 가서 뭐 할지는 생각 해 봤어?

골피 할 줄 아는 게 뭐 있나요. 중국집이나 해야죠.

병준 하긴, 중국에서 중국집해도 이상할 건 없으니까.

골피 혹시 흥관장님 보시면 인사 못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말 좀...

병준 그래, 내가 마이클한테 못 볼꼴을 보인 것 같네.

골피 저는 형님 이해해요.

병준 역시 동생 밖에 없다. 나 이해해주는 사람은.

병준, 골피의 손을 잡는다.

골피의 웃음엔 힘이 없다.

병준 언제 갈 지는 정해진 거야?
 골피 이 삼 일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래 들어가는 거니까 그쪽 상황 되는 데로 가야죠.
 병준 그래, 마이클 가기 전에 밥이나 같이 먹자.
 골피 그래요, 성지씨랑 같이 먹어요, 그럼. 맞다. 청혼하신 건 어떻게...?
 병준 (쑥쓸하게 웃는다) 그냥 뭐...순리대로 되겠지.

병준, 골피의 어깨를 다독이고 도장을 빠져나간다.

S#118. 약국 밖 거리 (밤)

골피, 불꺼진 약국 안을 바라본다.
 약국 유리창에 조심스럽게 손을 갖다 대더니, 이내 돌아서 되돌아간다.

S#119. 약국 안의 방 (다음날 아침)

성지, 방바닥에 누워있다.
 난장판이 된 방 안에 빈 소주병이 방바닥에 굴러다닌다.
 성지,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른다.
 병준에게 연결되지만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통화 안내 소리만 나온다.
 성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바닥으로 떨어진다.
 성지, 자신의 앞에 있는 투명한 물 컵 안에 소주를 반 줍 따른다.
 그리고 그 물 컵 안으로 약 한 알이 들어간다.
 물속에 들어간 약에 기포가 생기면서 빠른 속도로 약이 녹는다.
 물 컵 안으로 한 알 더 들어간다.
 그 약에도 기포가 생기면서 물에 녹는다.

S#120. 골피의 방 (아침)

골피의 방, 대부분의 짐이 정리된 상태다.
 몇 개의 여행 가방이 방 한 켠에 놓여있다.
 골피가 자신의 방을 둘러본다.
 방문이 열리고 마사장과 마부인이 들어온다.

마사장 짐은 다 왔냐?
 골피 네.

마부인 내일이면 한국 생활도 다 끝이구나. 끝이야.
 꼴피 서운하시죠?
 마사장 우리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서운할 게 뭐있냐. 니가 서운하
 겠지.
 마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 가면 친척들도 많고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꼴피 네.
 마사장 그런데 가기 전에 약 좀 지어서 가면 안 되냐?
 마부인 (마사장을 나무라며)됐어요. 그냥 가요. 어차피 가면 구하지도
 못하고 이젠 먹지도 못할 텐데 좀 참읍시다.
 마사장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구할 수 있을 때 좀 가져가면 좋으니까.
 (꼴피에게) 힘들면 됐다. 참으면 되지, 뭐.
 꼴피 아니예요. 지어 올게요. 어차피 약사 선생님한테 인사도 해야
 되는데요.
 마사장 고맙다.

S#121. 약국 (낮)

꼴피가 약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성지가 보이지 않는다.
 꼴피의 시야 안으로 제조실 안쪽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이 들어온다.

꼴피 성지씨, 저 왔어요.

(사이)

꼴피 성지씨, 안에 있죠? 저 내일 중국으로 떠나요.

성지의 대답은 없으나 방 안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꼴피 저 내일 중국으로 떠난다고요. 그래서 약 지으러 왔어요. 성지씨,
 안에 없어요?

성지의 공포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린다.
 방안에서 약병이 날아온다.
 약국 바닥 안으로 알약이 쏟아진다.

성지 닥치고 이거 갖고 꺼져.

골피 네?
성지 꺼지라고. 약 달라며, 이거 다 가지고 꺼지라고.
골피 성지씨?

골피,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은 난장판이 되어있다. 어질러진 방 안에 소주병이 굴러다닌다.
성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계속 웃고 있다.

골피 성지씨, 술 마셨어요?
성지 술 마셨냐고? 술만 마셨겠냐? 미친놈.

골피, 누워있는 성지의 옆에 앉는다.
성지 앞에 있는 컵을 드는 골피.
소주 안에 있던 약은 이미 다 녹아 형체가 남아있지 않다.
골피, 컵을 살짝 흔든다. 컵 안에 있는 소주의 수면이 위태롭게 찰랑거린다.

골피 무슨 일 있어요? 혼자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골피, 소주를 마신다.
컵에 담긴 소주가 골피의 목구멍 안으로 들어간다.
성지가 손을 흔들어 만류하지만 소주는 골피의 목구멍을 통해 넘어간다.
물 컵 안에 있던 소주도 현저하게 줄었다.
그 모습을 보던 성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성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골피 왜 그래요? 형님이랑 싸웠어요? 결혼은 어떻게……?

골피, 컵에 있는 소주를 마신다.

성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 새끼가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너 때문에 지금 다 박살이 나서 쪽박 차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야.

골피 저 때문이라뇨. 뭐가 저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요.

성지 (웃으며) 진짜 몰라서 물어보냐? 너 같은 멍청이 때문에, 너 때
문에 다 엉망이 됐다고. 나도, 너도,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엉망진창이 됐어. 흥관장도, 왕사장도, 나도, 니가 옛 뻘인 거야.

골피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제가 옛 먹였다고요?

성지 아직도 감이 안 오냐?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러니까 이용당하

는 거야, 멍청아.
골피 (약기운이 올라온 듯 웃는다) 이용당하긴 누가 이용을 당해요?
성지 (더 크게 웃으며)여기 너밖에 더 있냐? 이 멍청아.
골피 제가 이용을 당했다고요?

S#122. 화교촌의 길거리.

바들바들 떨며 거리를 걷고 있는 골피, 피식피식 웃음이 나온다.
골피, 걷다가 주저앉아 구토를 한다.
화교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골피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골피의 창백한 얼굴엔 웃음기가 감돈다.

S#123. 게임장 앞 (동 시간)

골피가 게임장 문을 밀자 그대로 열린다. 게임장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부서진 게임기 사이로 하나의 게임기가 돌아가고 있다.
부서진 게임장 안, 하나의 게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골피 형님, 안에 계세요?
성지 (E) 정말 모르겠냐? 개가 왜 너랑 의형제를 맺은 것 같아? 그냥
 너처럼 멍청한 애가 필요했던 거야. 널 이용해서 나에 대해 물어
 보고, 널 이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갔던 거라고. 이 동네
 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멍청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엉망이
 된 거라고.
골피 형님, 안 계세요?
병준 (E)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아?
골피 형님!
병준 (E) 그 여자 이름이 성지야? 병원장 딸이래? 결혼은 했고?
골피 병준이 형님, 안 계세요?
병준 (E) 절대 비밀이야. 알지?

게임기 화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골피,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때 골피의 뒤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골피의 친毋 (E) 찬규야.

골피, 주저 앉은 채로 고개를 돌린다.

골피의 눈 앞에 일반 아파트 안의 가정집 거실 풍경이 펼쳐진다.

어린 시절의 골피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다.

집안에 온통 붉은 차압 딱지가 붙어있다.

어린 시절의 골피가 한 장의 차압 딱지를 떼어내서 자신의 이마에 붙이고 뛰어다닌다.

주방에서 골피의 친엄마가 골피를 부른다.

골피의 친매 **찬규야. 약 먹어야지.**

어린 골피는 엄마의 말에 개의치 않고 거실을 그대로 뛰어다닌다.

골피의 친매 **찬규야, 약 먹어야지.**

어린 골피를 바라보는 친엄마와 친아버지, 쓴웃음을 짓는다.

골피의 친아빠, 골피의 친 엄마의 손을 지긋이 잡는다. 친엄마가 그를 쳐다본다.

골피의 친아빠, 고개를 젓는다.

골피의 친 부모는 골피에게 주려던 약을 먹는다.

뛰어다니던 골피가 주방을 보자 부모가 쓰러져있다.

어린 시절의 골피, 그들을 흔들며 깨우고 있다.

현재

멍하게 웃고 있는 골피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른다.

게임기 화면이 멈추고 가오리가 뜬다. 뽕빠레가 울린다.

S#124. 병준의 집 (그날 아침)

섹스를 하고 있는 은주와 병준, 초인종이 울린다.

섹스를 하고 있던 은주와 병준, 하던 행동을 멈춘다.

은주 **누구야? 이 시간에.**

병준, 팬티만 입고 현관으로 가 문을 연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골피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서있다.

골피 **형님, 여기 계셨네요.**

병준 **마이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골피 **저 내일 중국으로 떠나요, 그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은주 누구야?

은주,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나온다.
콜피와 은주 서로를 본다.

은주 아, 개구나, 오빠가 말한.

콜피 누구?

병준 신경 쓰지 마. 동생이야. 잠깐만, (은주에게) 야, 너 대충 입고
 좀 나가있어.

은주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

은주, 투덜거리며 옷을 대충 챙겨 입는다.
은주, 핸드백을 들고 나간다.

은주 그럼 다음에 봐용.

병준은 집안으로 들어가 티셔츠를 챙겨 입는다.
콜피의 시선이 은주의 핸드백을 따라 이동한다.
콜피가 성지를 주려고 샀던 바로 그 핸드백이다.

병준 뭐해? 안 들어와?

콜피 네.

병준 마이클, 내일 떠난다고? 너무 갑자기 떠나는 거 아니야?

콜피 그렇게 됐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병준 밥? 아직 안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콜피 잘 됐네요.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자장면이랑 탕수육이나 해 드리
 려고 재료 싸왔어요.

병준 정말? 역시 동생밖에 없다.

콜피 후라이팬이랑 냄비 있죠?

병준 그럼, 그거 없는 집도 있나?

병준, 화장실로 들어간다. 샤워기로 물 트는 소리가 들린다.
콜피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서 재료들을 꺼낸다.
냄비 안에 재료들 위로 하얀 알약 다섯 알이 떨어진다.

S#125. 콜피의 집 (같은 시간)

마사장과 마부인 방바닥에 앉아 있다.

마사장, 시계를 본다.

마사장 이놈은 약만 지으러 가면 왜 이렇게 안 와?

마부인 약사 선생님한테 인사하느라 그러겠쥬.

마사장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마부인 일은 무슨 일이요. (사이) 그러게 그냥 가자니까.

S#126. 은주의 집 (같은 시간)

식탁에 앉은 병준과 골피, 테이블 위에는 탕수육이 있고 병준의 앞에 자장면이 있다.

골피 얼른 드세요.

병준 이거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짜장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먹기 아까운데?

골피 아깝긴요, 그래봤자 짜장면인데요, 얼른 드세요.

병준, 젓가락을 들어 자장면을 비빈다.

골피는 병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병준, 젓가락으로 자장면발을 들어 올리다 잠시 행동을 멈춘다.

병준 사실 내가 오늘 먹고 싶었던 건 짬뽕이었는데 말이야.

골피 형님은 여전하시네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다음에 헤드릴게요.

병준, 젓가락으로 면발을 들어올린다.

골피가 숨을 죽이고 이 모습을 보고 있다.

병준, 자장면이 입 근처까지 갔다가 젓가락을 놓는다.

병준 다음에 언제?

골피 다음에 한국에 오면 그때 꼭 헤드릴게요.

병준 약속하는 거다?

골피 네. 불기 전에 얼른 드세요.

병준, 다시 자장면을 먹으려다가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골피 왜..안 드세요?

병준 마이클, 잠깐만 있어봐.

병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내 골피의 앞에 내놓는다.

병준 마이클, 내가 마이클한테 따로 해줄 건 없고, 이거.

골피 뭐예요 이게?

병준 마이클 부모님 허리 아프시다며. 내가 알아보니까 수술비가 만만치 않던데. 수술하는데 보태 써.

골피 제꺼예요?

병준 그럼. 마이클거야.

골피 왜 이걸 저한테?

병준 형이 동생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

골피, 쉽사리 봉투에 손을 대지 못한다.

병준 진작 준다는 게 내가 요즘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잖아. 얼마 되지도 않아. 받아 뒀.

골피 형님.

병준 뭐해? 얼른 챙기지 않고.

골피 (봉투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간다)

병준 마이클,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알지?

골피 (대답을 하지 못한다)

병준 왜 대답을 안 해?

골피 (고개를 끄덕인다) 죄송해요, 형님.

병준 이럴 땐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맙다고 하는 거야.
(자장면을 후루룩 먹는다) 맛있다. 마이클은 왜 안 먹어?

S#127. 은주의 집 앞 (동 시간)

아파트 통로에서 뛰쳐나오는 골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다.

S#128. 약국 방 안 (동 시간)

성지, 방에 널부러져 누워있다.

성지 앞에는 골피가 마신 빈 술잔이 쓰러져있다.

골피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골피가 성지를 일으켜 뺨을 때려 깨운다.

골피 성지씨, 성지씨, 정신 좀 차려 봐요.

성지 (희미하게 눈을 뜬다) 왜 여겼냐? 아직 안 꺼졌냐?

골피 정신 좀 차려 봐요. 성지씨.
성지 꺼져, 제발.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골피 우리 중국으로 도망가요. 우리 같이 중국으로 도망가요.
성지 내가 너랑 중국에 왜 가, 미친놈아. 너나 가.

골피, 성지를 놓아준다. 골피, 맥이 풀린듯 주저앉는다.

골피 (울먹이며)성지씨, 내가 병준이 형님 죽였어요. 성지씨 사랑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같이 도망가요. 중국에 가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지 뭐? 누구를 죽여?
골피 병준이 형님이요. 성지씨가 준 약 먹여서... 내가 병준이 형님
 죽였어요.
성지 (웃는다) 너 미쳤구나. 너도 미쳤어. 이젠 너도 죽으면 되겠네.

성지,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낸다.

성지, 핸드폰 버튼을 누른다.

액정에는 119 버튼이 찍힌다.

성지 거기 119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신고해도 돼요?
골피 성지씨.
성지 사람이 죽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골피 사랑해요.
성지 사랑? 웃기지 마. 너도 결국 똑같은 남자야.

S#129. 병원 (며칠 후)

기자가 닥터박을 인터뷰하고 있다.

닥터박 자세한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심각한 약물
 중독 쇼크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탕수육 속에 들어
 있던 목이버섯이 아마 해독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목이버섯은 해독작용 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S#130. 취조실

골피, 자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손검사는 볶음밥을 먹다가 골피를 바라본다.

손검사 배고프다면서 왜 안 먹냐? 간짜장까지 시켜놓고.

골피 애초에 제가 마이클이었다면 지금 제 앞에는 스테이크가 놓여
있을까요?

손검사 이 자식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골피 제가 애초에 마이클이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죠?

손검사,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골피를 바라본다.

골피 농담이에요.

손검사 미친 새끼.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잘도 나온다. 잘도 나와.

골피, 자장양념을 면속에 넣고 비빈다.

S#131. 성지의 취조실

박검사가 성지를 취조하고 있다.

박검사 그러니까 김성지씨가 약을 지어준 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화교들
이 고통 받는 걸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이거군요.

성지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박검사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박검사, 노트북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검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성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박검사 아마 또 오셔야 될 겁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죠.

성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검사가 취조실 문을 열어준다.

성지가 취조실을 빠져나간다. 뒤이어 박검사가 나간다.

성지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네요.

박검사 살인 미수 사건이잖습니까. 힘드시더라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성지 그렇군요. 하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딴겠어요.

복도 안으로 어린 성지가 부르던 노랫소리가 들린다.

성지, 몇 걸음 걸어가다 뒤돌아본다.

S#81에서 어린 성지가 영안실 앞에서 형사들을 돌아보는 모습과 오버랩된다.

성지, 쓴 웃음을 짓더니 이내 다시 걸어간다.

S#132. 병준의 병원

병준이 누워있는 침대가 45도 각도로 접혀 병준이 앉아있다.

시야 안으로 혜숙과 닥터박이 들어온다.

혜숙 눈은 뜨고 있잖아요. 혹시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닥터박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볼 순 없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시죠.

혜숙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것만이라도 알면...

닥터박 글썄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이 될 지도 몰라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준 (E) 평생? 평생을 이렇게...결국 난 이렇게 박제되는 건가?

닥터 박이 병실을 나간다.

혜숙이 텔레비전을 켜다.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가 나온다.

골피가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나온다.

혜숙이 리모콘을 눌러 채널을 바꾼다.

채널이 돌아간다.

모자이크 된 얼굴의 남자가 인터뷰한다. 왕씨의 목소리다.

모자이크된 왕씨 개랑 우리들이랑은 친하질 않았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문제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일로 화교들이 피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채널이 돌아간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투신 자살한 뉴스가 나온다. 그는 흰천에 쌓여 들것에 실려가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흥관장과 같이 뚱뚱한 모습이다.

채널이 돌아간다.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한명의 남자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다.

진행자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총 삼백 구십 오차례에 걸쳐서...

채널이 돌아간다.

중국 대사관 앞 현장이다.

기자 한 명이 취재를 나갔다.

기자 여기는 중국 대사관 앞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채널이 돌아간다.

브이제이 특공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태원 거리 축제에 대한 보도가 나온다.

기자 네, 여기는 이태원 거리입니다. 세계는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외국인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볼까요?

프랭크 oh, its very funny. every body come to here, enjoy together.

혜숙 (E) 드라마는 왜 안 해?

문 열리고 닫는 소리가 들린다.

병준의 시야에는 텔레비전만 들어올 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목소리만 들린다.

혜숙 (E) 왔어요?

윤희장 (E) 애가 이지경인데 지금 테레비가 눈에 들어와?

혜숙 (E) 그 놈 어떻게 됐나 보려고 그래요. 애 생각만 하면 속이 터져서.

윤희장 (E) 시끄러, 테레비 꺼.

텔레비전 화면이 꺼진다.

혜숙 (E) 오늘은 나 집에 좀 들어갈게요.
 윤희장 (E)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이 이 모양이 됐는데 그게 할 소리다.
 혜숙 (E)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나도 사람인데.
 재황 (E) 그래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들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난다. 혜숙이 나간 모양이다.

윤희장 그런데 그 술집 기지배 말이 사실이나? 거기 재개발 예정지라는 거.
 재황 확인해 봤는데 그런가 봐요.
 윤희장 그럼 김상무한테 얘기해서 거기 다른 건물주들 좀 만나보라고 그래. 지금이 시기가 제일 좋아. 언론에서 띄워줄 때 그때를 잘 노려야 돼. 다른 회사에서 알박기 하기 전에 서두르라고 그래.
 재황 그럼 지금 살고 있는 화교들은 어떻게 하죠?
 윤희장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지금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집회하는 거 몰라? 적당히 돈 줘서 보내.
 재황 예, 그런데 아버지 거기에 정말 놀이동산 세우실 거예요? 형은 거기에 놀이동산 만든다고 그랬다던데요.
 윤희장 놀이동산? 너도 미쳤나? 거기에 놀이동산을 왜 만들어? 아파트 세울 거야. 이번엔 100층은 넘겨야 돼. 알았지?
 재황 네.
 윤희장 그런데 재는 계속 저렇게 눈뜨고 있는 거냐?
 재황 그런 것 같은데요.
 윤희장 재도 좀 자야지. 니가 눈이나 좀 감겨줘라.

병준의 시야로 재황이 들어온다.

재황의 손이 병준의 시야를 덮으면서 페이드아웃 된다.

병준 (E) 사랑해요. 아버지.
 재황 (E) 아버지, 지금 형 우는 것 같은데요?

페이드인

S#133. -S#24의 장면-

골피와 병준이 중국집에서 이야기 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자장면을 먹다 이야기하는 골피와 병준.

골피 그래요? 중국에 짜장면이 없다고요? 그거 정말 웃기는 짜장이네요.

병준 중국에서 온 화교가 어떻게 그걸 몰라?

골피 에이, 사장님. 저 중국에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오리지널 토종 화교거든요.

병준 화교가 중국에 가 본적이 없다고? 야, 니가 진짜 웃기는 짜장이다.